

합격 꿀팁

공무원 가이드북

2023
박문각

- ◆ 최신 공무원 시험 정보
- ◆ 출제경향 및 과목별 공부 방법
- ◆ 생생한 합격 후기
- ◆ 플래너 및 노트 정리법
- ◆ 학습전략 노하우



2023 박문각 공무원 가이드북

합격꿀팁

초판인쇄 2022년 8월 10일

초판발행 2022년 8월 16일

지 은 이 PMG 수험전략연구소

펴 낸 이 박 용

펴 낸 곳 (주)박문각출판

등 록 2015. 4. 29. 제2015-000104호

주 소 06654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83 서경 B/D 4층

대표전화 (02)6466-7202

팩 스 (02)584-2927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서는 비매품이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6704-516-4

합격 꿀팁

공무원 가이드북

2023
박문각

- ◆ 최신 공무원 시험 정보
- ◆ 출제경향 및 과목별 공부 방법
- ◆ 생생한 합격 후기
- ◆ 플래너 및 노트 정리법
- ◆ 학습전략 노하우





머리말 PREFACE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굳이 통계청 자료를 뒤적이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권하고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도 바로 공무원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시대에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요?

해마다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합니다. 선망하는 직업인 만큼 공무원의 인기는 높고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이제 막 수험 생활에 뛰어들든 공무원 수험생 신분으로, 정글 같은 수험가 한복판에서 그 출발선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합격을 위한 수험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생텍쥐페리는 말했습니다.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무엇인가 이루고자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진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본격적인 수험 생활에 앞서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수험 계획을 세운다면, 공무원 합격의 꿈을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고민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자신과의 외롭고 긴 싸움의 출발선에 선 수험생의 동반자가 되어, 따뜻하고 객관적인 조언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전략에 동참하고 싶은 바람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단기간에 합격의 꿈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학원이나 인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아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 과목별 공부 방법, 합격 플래너 활용법과 노트 정리법에 지면을 할애하였습니다. 합격 플래너의 활용법과 공부법을 참조하여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했던 뽀빠리 운동을 기억할 것입니다.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멀리, 높이 도약해야 합니다. 이제 구름판을 힘차게 디딜 준비가 되었나요?

구름판을 힘차게 디디고 앞에 놓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으로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쁨의 순간을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PMG 수험전략연구소 드림



이 책은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공무원 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출간일 이후로 변경된 사항은 반영하지 못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CONTENTS

1

공무원 시험 들여다보기

1. 공무원 시험 열풍, 이유는? • 11
 - (1) 응시 연령 제한 폐지,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 11
 - (2) 직업 선호 조사 1위 공무원, 그 이유는? • 12
 - (3) 평범한 수험생이 합격한다 • 16
2. 공무원이란? • 17
 - (1) 공무원의 유형 • 17
 - (2) 공무원이 하는 일 • 19
 - (3) 공무원의 의무 • 23

2

공무원 시험 파고들기

1. 공무원 시험 개요 • 25
 - (1) 국가직 공무원/지방직·서울시 공무원 • 25
 - (2) 공무원 채용시험의 종류 • 25
 - (3)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기관 • 26
 - (4) 시험 공고 • 28
 - (5) 시험 절차 및 개요 • 28
2. 응시 자격 • 30
 - (1) 응시 결격 사유 • 30
 -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것 • 32
 - (3) 학력 및 경력 • 33
 - (4) 응시 연령 • 33
 - (5)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33
 - (6) 신체검사 • 34
3.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모집제 • 35
 - (1) 임용 예정 기관·지역별 구분모집제 • 35
 - (2) 장애인 구분모집제 • 37
 - (3)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 38
 - (4)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 38
 - (5)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 40

수험생이 자주 하는 질문 FAQ • 44

4. 가산점 제도 • 46
 - (1) 취업 지원 대상자 가산 특전 제도 • 47
 - (2) 의사상자 가산점 제도 • 47
 -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48
5. 개별 공무원 시험 안내 • 49
 - (1)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49
 - (2)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55
 - (3) 사법공무원-법원 등기 • 60
 - (4) 경찰공무원 • 64
 - (5) 소방공무원 • 69
 - (6) 입법공무원 • 74
 - (7) 우정직 공무원 • 76
6. 최근 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사항 • 77
 - (1) 2022년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개편 • 77
 - (2) 공채시험(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추가 합격자 결정 제도 • 78
 - (3)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개선 및 추가 면접 실시 • 79
 - (4) 7·9급 공채 가산 특전 신청 및 적용 방식 개선 • 82
 - (5) 응시자 준수 사항 변경 • 82
 - (6)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 83
 - (7) 지방직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통합 출제 • 84
 - (8) 지방직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통합 출제 • 84
 - (9) 2022년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개편 • 85
 - (10) 2023년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응시 자격 변경 • 85



차 례 CONTENTS

3

공무원 시험 똑똑하게 준비하기

1. 학원 200% 활용하기 • 87
 - (1) 학원 강의 수강, 꼭 필요할까? • 87
 - (2) 학원 강의의 득과 실 • 88
 - (3) 학원 선택 방법 • 90
 - (4) 학원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 91
2. 인터넷 강의 제대로 듣기 • 93
 - (1) 인강의 필요성 • 93
 - (2) 인강 선택법 • 95
 - (3) 인강 사용법 • 98

실전을 미리 경험하는 모의고사 • 100

3. 과목별 공부 방법 • 102

- (1) 국어 • 102
- (2) 영어 • 112
- (3) 한국사 • 121
- (4) 행정학개론 • 128
- (5) 행정법총론 • 137

알짜배기 그룹 스터디 전략 • 146

4. 공부 계획 세우기 • 148

- (1) 공부 계획, 왜 필요한가? • 148
- (2) 합격 플래너 꼼꼼 활용법 • 150

5. 합격을 부르는 노트 정리법 • 157

- (1) 왜, 노트 정리인가? • 157
- (2) 노트 필기 준비물 • 158
- (3) 실전 노트 정리법 • 159

효과 만점 기본서 활용법 • 164

4

생생한 공무원 합격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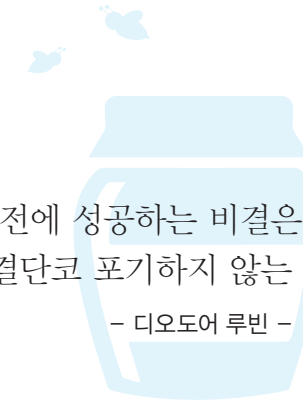
1. 박문각 스파르타반
 -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 167
 - 합격하고 뒤를 돌아보니 나 혼자 합격한 것이 아니라~ • 171
 - 수험은 참 괴로운 과정~ 보상과 위로가 필요 • 176
2. 박문각 기숙연계반
 - 공부한 내용이 차곡차곡 쌓여서 단단해질 것을 믿으며~ • 180
 -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 183

D-1 시험 전일 막판 정리법! • 186

드디어 D-Day, 시험장에서 해야 할 일 • 187

도전에 성공하는 비결은 단 하나,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 디오도어 루빈 -



1 공무원 시험 들어다보기

1. 공무원 시험 열풍, 이유는?
2. 공무원이란?

1! 공무원 시험 열풍, 이유는?

2022년도 국가직 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165,52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 예정 인원은 5,672명이었다. 경쟁률 29.2 대 1, 실로 어마어마한 경쟁률이다. 고용 시장은 불안정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신입 직원 채용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20~30대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보다는 공무원 시험 응시를 선택한 고교 졸업생, 인생 2막을 준비하는 40~50대 늦깎이 지원자까지 몰려 가히 공무원 시험 열풍을 만들고 있다.

공직의 가장 말단이라 할 수 있는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연령을 불문하고 수험생이 몰리고, 공무원이 되고자 정부청사에 침입해 성적 조작까지 저지를 정도로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응시 연령 제한 폐지,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공무원 시험에 응시 가능한 연령은 하한선만 있을 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40~50대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정리해고 등 직장을 그만둔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수험생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뛰어난 합격 전략으로 인생 2막을 9급 공무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의 합격수기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공무원 시험은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한 시험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더러,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제도도 있다.

2 직업 선호 조사 1위 공무원, 그 이유는?

20대 이상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미혼 남녀들은 배우자 직업으로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0%가 가장 선호하는 자녀의 진로를 공무원으로 꼽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좋은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조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직업으로서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1 안정적인 정년 보장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다.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직, 명예퇴직 등의 걱정 없이 정년을 보장받는다. 일반 대기업의 경우 40~50대 사이에 퇴직의 압박을 받고, 일반 사기업의 경우 정년이 55세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은 안정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진 직업이라 할 것이다.

2 각종 수당 지급, 호봉제

2022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면 9급 1호봉의 월지급액은 1,686,500원이다. 봉급(기본급)으로만 보면 다소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보수는 이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18종)으로 구성되어 기 때문에 여러 수당을 합치면 결코 적다고만 할 수 없는 금액이다.

+ 자세히 보기 공무원 보수: 봉급(기본급) + 수당(18종)

수당(14종)	상여수당(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성과상여금 3종)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주택수당/육아휴직수당 등 4종)
실비변상(4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등 4종)
	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등 2종)
	정액 급식비(월 14만원)
실비변상(4종)	직급 보조비(월 15.5~75만 원)
	명절 휴가비(월 봉급액의 60%)
	연가보상비(20일 내)

+ 자세히 보기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개정 2022. 1.)
(월 지급액, 단위: 원)

계급·직무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1	4,189,900	3,771,900	3,403,000	2,916,600	2,606,4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035,700	2,711,7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156,700	2,821,1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280,600	2,934,7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406,200	3,051,3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533,000	3,170,3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660,900	3,291,1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789,500	3,413,4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5,449,700	4,929,600	4,464,600	3,918,500	3,536,1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047,300	3,659,7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5,782,600	5,226,200	4,738,800	4,177,300	3,775,1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5,954,500	5,379,900	4,881,100	4,299,600	3,886,5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6,127,300	5,534,600	5,013,300	4,414,000	3,992,2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6,300,700	5,674,600	5,136,100	4,520,700	4,090,8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6,452,100	5,803,700	5,249,200	4,621,200	4,183,9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6,586,600	5,922,000	5,354,700	4,716,100	4,271,5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6,705,900	6,031,000	5,452,700	4,804,200	4,353,9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6,812,100	6,130,500	5,543,800	4,886,400	4,431,7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6,907,200	6,222,500	5,628,000	4,963,200	4,505,0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6,992,400	6,306,400	5,707,000	5,035,000	4,573,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7,071,000	6,383,100	5,780,000	5,102,100	4,638,3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7,140,900	6,453,500	5,847,700	5,165,000	4,699,0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7,200,100	6,413,700	5,910,100	5,224,100	4,756,4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6,465,500	5,968,500	5,279,800	4,809,9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6,515,000	6,016,300	5,330,700	4,860,6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6,062,100	5,373,800	4,908,3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6,104,500	5,413,600	4,947,9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5,451,600	4,985,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5,020,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5,054,7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더구나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2,000~2,50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9급 1호봉 봉급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근속 1년마다 급여가 1호봉씩 인상되기 때문에 잦은 연봉 동결이 이루어지는 일반 기업의 근로자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근속에 대한 대우를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다.



③ 폭넓은 복지 혜택

공무원의 경우 보수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적을지 몰라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간극을 줄여 나가는 추세이다. 일반 사기업에 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휴직 사유 및 기간

구분	휴직 사유	기간
직권휴직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공무원 질병은 3년 이내	1년 이내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3월 이내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청원휴직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특정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채용기간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1년 이내 (총 3년)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년 이내

□ 육아 휴직 제도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3년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육아 휴직 기간 1년과 비교하면 엄청난 장점임이 분명하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출산·육아 등의 문제로 많은 부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서 3년의 육아 휴직 기간은 본인의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으면서도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일례로 교사와 공무원 부부의 경우, 남편이 육아 휴직을 쓰고 남편의 휴직 기간이 다 끝날 때쯤 부인이 육아 휴직을 쓰게 되면 6년 정도 아이를 부모가 오롯이 키울 수 있다. 또한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육아 휴직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반면 공무원은 사기업에 비해서는 육아 휴직이 보장된다는 점도 큰 장점 중의 하나다.

□ 자기개발의 기회 제공

공무원의 경우 일정한 선발 기준을 통과한 공무원에게는 국비로 해외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자비로 해외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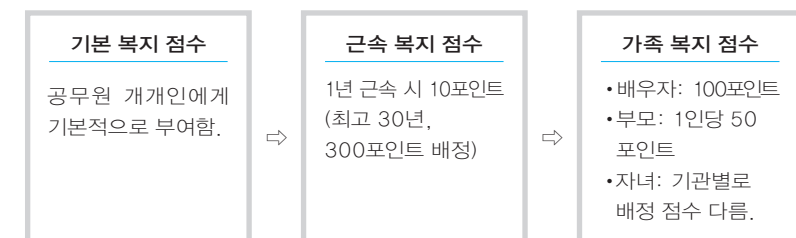
□ 자녀 학자금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보조해 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시 국고에서 학자금을 대여해 준다.

□ 복지 포인트 제공

공무원에게는 복지 포인트가 제공된다.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으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서, 매년 1월 1일 새롭게 부여된다. 지난해에 남은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그 해마다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복지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1포인트당 1,000원으로 환산된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기본 점수에 근무 연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 점수, 근속 점수 등이 합쳐져서 개인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자세히 보기 복지 포인트 구성 예시



□ 주택 자금 대출 등

그 밖에도 낮은 이율로 주택 자금이나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임대 주택 제공의 혜택도 있다.

3 평범한 수험생이 합격한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매력적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최후의 승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분명 학창 시절 성적이 뛰어난 우등생이나 모범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험난한 수험 생활을 이겨내고 합격의 영광을 안은 수험생은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이다.

수많은 합격수기에서 합격생들은 말한다. 자신은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도,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다고.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자신이 남보다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노력했고 1시간이라도 먼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다고 말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공무원 수험 생활이 쉽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 매우 어렵고 혹독한 과정임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이겨내고 합격하는 사람들은 결코 머리가 좋아서도,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닌 인내·끈기·절제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응시생들의 성실성을 점검하는 시험이며, 적어도 1년 이상의 수험 구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공무원 시험은 제한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도출해야 하며,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를 맞힐 수 없게끔 출제하는 시험인 것이다.

이런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 10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시험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2 공무원이란?

1 공무원의 유형

공무원의 유형은 분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공무원은 임용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고용되어서 어디에서 일하는가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것이다.

국가직 공무원은 대통령(소속 장관)과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국가에 고용되어서 국가 기관에서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라 하겠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장과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고 지방자치 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직 공무원은 주로 행정부나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다음과 같이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뉜다.



□ 경력직 공무원

구분	내용
일반직 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① 행정·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지도직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① 전문경력관
특정직 공무원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① 법관·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공무원 ④ 소방공무원 ⑤ 교육공무원 ⑥ 군인·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뉜다.

□ 특수경력직 공무원

구분	내용
정무직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 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⑤ 국무총리 ⑥ 국무위원 ⑦ 대통령 비서실장 ⑧ 국가안보실장 ⑨ 대통령 경호실장 ⑩ 국무조정실장 ⑪ 처의 처장 ⑫ 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⑭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⑮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⑯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별정직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 비서관·비서 ② 장관 정책보좌관 ③ 국회 수석전문위원 ④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⑤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입법공무원, 사법공무원, 행정공무원

공무원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입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회의 사무 직원인 입법공무원, 사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법부의 직원인 사법공무원, 행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행정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행정공무원이다.

2 공무원이 하는 일

공무원의 직군은 다양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얘기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주로 수험생들이 많이 생각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직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 선발되기 때문에 응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일반적으로 5급, 7급, 9급으로 나누어 시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급이나 8급 선발시험도 시행된다.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계급별·직렬별로 과목이 상이하다. 따라서 수험생은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계급·직렬에 맞는 시험 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과목뿐만 아니라 난이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계급이나 직렬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7·9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7·9급 공무원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별로 각기 다른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일부 기관에서 별도로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를 먼저 선택한 뒤, 해당 시험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인데, 일반직 공무원은 크게 행정직·기술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직렬별로 7·9급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행정직군 공무원

일반행정, 교육행정, 세무, 관세, 복지,公安 등 폭넓은 일을 수행한다. 직렬별로 업무 내용이 다르므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요 직렬별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렬(직류)	업무 내용
행정직(일반행정)	· 각종 국가 제도의 연구, 법령 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 성격의 업무
행정직(교육행정)	· 교육 제도의 연구, 법령 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
행정직(고용노동)	노동현장의 근로감독과 산업재해 예방
행정직(선거행정)	· 공직 선거 및 위탁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선거 관리 업무 · 정당 관리, 정치자금 관리, 공명 선거 및 투표 참여 홍보 등
행정직(인사조직)	공무원 채용과 인재개발, 성과관리 등
행정직(회계)	회계 업무 및 결산 업무
직업상담직(직업상담)	고용센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상담
세무직(세무)	·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관세직(관세)	·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미수 단속,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심리 · 관세의 부과·감면·징수
통계직(통계)	· 통계 기준의 설정, 표준 분류, 통계조사의 설계 · 주요 경제사회 통계조사의 실시·분석·공표, 통계정보 자료의 유지 및 관리
감사직(감사)	· 「감사원법」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확인 및 회계 감사 · 직무 감찰 업무의 계획·집행 · 감사 결과에 따른 위법·부당한 사항의 지적, 개선 권고, 관계자의 처분에 대한 판정 업무
사서직	· 도서관 운영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제도의 조사 연구 · 도서관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업무 · 도서관 자료 및 참고 자료의 수집 선택·수집 분류·목록의 편성, 보관 및 열람 업무
사회복지직	복지행정 분야의 관리 및 집행 업무
외무영사직 (외무영사)	· 외교 또는 국제기구와 외교관계 유지 ·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 · 외교 의전·여권 발급 등 외무행정 지원 업무
교정직(교정)	·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 ·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직렬(직류)	업무 내용
보호직	·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 자료 제공 · 소년원 및 소년부류심사원의 운영·감독 등 소년보호행정 ·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 예방 활동 ·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및 응급 구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검찰사무직	· 범죄 사건의 접수·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 수사, 공소 제기·유지 등 검찰사무 보조 · 국가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 운영
마약수사직	· 마약 사건의 접수·처리 및 마약 범죄수사·조치 · 마약·한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유통 단속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내·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 출입국 관리사범의 단속·수사 및 조치 · 외국단체의 등록·활동조사 등
철도경찰직	· 열차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로서 열차 내 승객의 안전 보호, 철도 장비·화물·승객의 휴대품 도난 방지 · 기타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사건의 처리(열차 내에서 행하는 승차권 검사 등 철도 운송에 관한 업무는 운수직이 담당)

□ 기술직군 공무원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군이다. 모집 인원은 적지만 관련 분야가 명확하여 비전문가가 쉽게 응시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공자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시험 과목이 특성화고등학교의 교과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도전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직렬(직류)	업무 내용
공업직(일반기계)	자동차·철도차량·산업기계·건설기계·수도·위생설비·계량기 등 각종 기계의 설비에 관한 기술 업무를 담당
공업직(전기)	전력시설·전기공사·전기기기·전기용품 등의 전기기술 분야 업무를 담당
공업직(화공)	무기 및 유기화학·생화학·분석화학 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
농업직(일반농업)	식량 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의 생산 및 농산물 검사 업무를 담당
임업직(산림자원)	-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 - 임산물의 이용·가공·목재가공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시설직(일반토목)	- 도로, 교량, 상·하수도, 항만, 하천, 철도, 댐 등의 건설 공사 업무를 담당 - 농지개량 및 농지 확대를 위한 조사·계획·설계 등 업무를 담당 - 측량 제도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
시설직(건축)	-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준공검사 업무를 담당 -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
전산직(전산개발)	- 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유지 -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 운용 및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전산직(정보보호)	-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 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제·개정, 교육 계획 수립, 정보보호 실태 점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
방송통신직(전송기술)	-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 개선 등 통신 정책에 수반된 장거리 통신시설의 신설 및 증설 업무 - 국가안보통신, 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 통신업무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인 업무 담당 -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건설·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보건직	-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업무 - 검사, 방역 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 침입과 국외로의 전파를 막는 검역 업무를 수행 -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보건업무 - 환경위생 등의 보건 업무를 담당 -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
방재안전직 (방재안전)	- 각종 재난 대응 및 총괄 기획 - 지역 안전관리 계획 및 지역 재난 대응 계획 수립 - 안전교육 및 훈련 - 안전점검 장비운영·관리

3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상세히 나와 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성실 의무를 진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데 이를 복종의 의무라 한다. 또한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이것은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이다.

그 밖에 공무원은 친절·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교 중립의 의무(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밀 엄수의 의무(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등을 진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이하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기존의 「공무원 윤리헌장」이 35년 만에 개정되어 국가관·공직관·윤리관 등 세 분야로 핵심 공직 가치를 구조화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 공무원 윤리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2 공무원 시험 파고들기

1. 공무원 시험 개요
2. 응시 자격
3.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모집제
4. 가산점 제도
5. 개별 공무원 시험 안내
6. 최근 채용시험 제도 변경 사항

1! 공무원 시험 개요

1 국가직 공무원/지방직·서울시 공무원

공무원은 크게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합격 후 중앙 부처 또는 중앙 부처의 하급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시험 공고는 보통 매년 12월 말이나 1월 초쯤 발표되지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시험 전에 반드시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www.gosi.kr) 등에 방문하여 시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각 지방 자치 단체의 하급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공고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local.gosi.go.kr)에서, 서울시 공무원 시험 공고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gosi.seoul.go.kr)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2 공무원 채용시험의 종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채용시험에는 공개 경쟁 채용시험과 경력경쟁 채용시험이 있다.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개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다.

공개경쟁 채용시험	국가공무원으로서 응시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가 없는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등에서 정한 응시 연령에 해당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시험이다.
경력경쟁 채용시험	일반적인 공개경쟁 채용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각 부처(기관)별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관련 분야의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응시 조건을 갖춘 지원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3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기관

구분				관련 법령	담당 기관	
국가공무원	행정부	일반직	3~9급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인사혁신처 소속장관(각 부처)	
			연구·지도직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소속장관(각 부처)	
		특정직	검사	「검찰청법」	법무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외교부 인사혁신처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법」	경찰청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법」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군인	「군인사법」	국방부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국가정보원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국방부	
			경호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처	
		입법부	일반직		「국회인사규칙」	국회사무처
		사법부	일반직		「법원공무원규칙」	법원행정처
		중앙선관위	일반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헌법재판소	일반직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시·도청, 시·도교육청)	

□ 공무원 채용시험 정보, 이곳에서 확인하자

채용시험에 대한 정보는 해당 시행 기관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도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과 제도·연간 채용시험 통계 및

각종 공지사항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외 시험 단계별로 시험 일시 및 장소도 공고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된 의문 사항이나 개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참여민원>온라인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문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국가 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local.gosi.go.kr)를 살펴보면 된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gosi.seoul.go.kr)가 있다.

시험명	홈페이지 주소	주관 기관
국가공무원 (5·7·9급)	www.gosi.kr www.gojobs.go.kr www.mpm.go.kr	인사혁신처
국회공무원	gosi.assembly.go.kr	국회사무처
법원공무원	exam.scourt.go.kr	법원행정처
군무원	www.recruit.mnd.go.kr	국방부
	www.goarmy.mil.kr	육군
	www.navy.mil.kr	해군
	rokaf.airforce.mil.kr	공군
경찰공무원	gosi.police.go.kr	경찰청(각 지방경찰청)
소방공무원	www.nfsa.go.kr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국가정보원 직원	www.nis.go.kr	국가정보원
초·중·고 교사	www.kice.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 시험 공고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험 계획은 시험일 해당 연도 초에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공고된다. 해당 연도의 선발 예정 직렬 및 인원,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응시 자격, 원서 접수 기간, 시험 일정 등이 상세히 공고되므로 수험생들은 이것을 꼭 살펴보고 수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원서 접수일 및 시험일 등을 잘 체크해서 착오나 혼동으로 인하여 원서 접수 등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5 시험 절차 및 시험 개요

시험은 크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눌 수 있다.

7·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한 번만 보게 되는데, 7급의 경우에는 필수 7과목(다만, 외무영사직은 필수 6과목, 선택 1과목으로 이루어짐, 영어는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을 보며, 9급의 경우에는 필수 5과목(선거행정, 방재안전 등 예외 있음)을 본다.

7급과 9급 공채의 경우 면접시험은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부터 영어 면접이 폐지되고 7급에는 집단토론, 9급에는 5분 스피치가 각각 도입되어 면접 비중이 높아졌다.

구분		면접 시간	면접 방법
국가직	7급	150분 내외	집단토의+개인 발표+개별 면접
	9급	70분 내외	5분 발표+개별 면접
서울시	7급	105분 내외	토론 면접+주제 발표+개별 면접
	9급	40분 내외	5분 스피치+개별 면접

※ 과제 검토 및 작성 시간 포함

● 면접시험 평정 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평정 방법은 면접위원들(7급: 3명, 9급: 2명)이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게 된다. 위원 1인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우수로, 위원 1인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거나, 위원 1인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미흡으로 분류한다. 그 외의 경우는 보통으로 평정한다.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 성적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우수	7·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제2차 시험(7·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합격
보통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내 달할 때까지 7·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미흡	7·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 6급 이하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의 제2차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거나,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탈락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면접시험(심층면접)을 실시한다.

● 공무원 면접시험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정부는 2015년부터 5·7·9급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고 있다. 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3차 면접시험에서 NCS를 기반으로 공직사회 가치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5급은 중간관리자 역할을, 7·9급은 실무능력 평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2 응시 자격

2014년 2월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이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메인 화면 배너 중 ‘지원자격 자가진단’ 메뉴를 선택하여 하위 메뉴의 5급 공채, 7·9급 공채, 민간경력 채용 등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지원자들이 스스로 체크 리스트를 입력하면 지원자들의 응시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가진단 주요 항목은 연령, 결격 사유, 국적, 신체검사, 임용유예, 시험 과락 등이다.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응시 결격 사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예를 들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복권이 된 사람은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연히 복권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도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그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도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찰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군 복무 중 영창,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 체납, 의가사 제대 등은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 복무 전이라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최종 합격한 후에는 임용 유예 신청을 한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하다. 따라서 군 미필자의 경우에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응시 결격 사유의 존부 확인은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실제 임용 예정 부처에서 실시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것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국적 취득 여부 판단은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공무원임용령」 제4조 등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해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외국 영주권을 획득한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는 채용시험(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가 신고된 재외국민에 한하여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재외동포가 그 나라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외국인에 준하여 공무원 임용 자격이 제한된다. 「국적법」에 의한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도 원칙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지만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에서 임용이 불가하다. 단, 경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분야 등의 합격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령」상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분야(「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 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 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3 학력 및 경력

공개경쟁 채용시험(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일반외교’ 분야 포함)은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종래의 학력 제한은 1973년에 폐지되었고, 2005년부터는 응시 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삭제하여 시험위원 등 다른 사람이 수험생의 학력 사항 등을 알 수 없게 하였다(블라인드 면접 방식). 즉,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통과하는지를 기준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다.

4 응시 연령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 이전의 연도에 다음 구분에 따른 응시 연령에 해당되어야 한다.

채용시험	응시 연령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만 20세 이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만 18세 이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교정, 보호직)	만 20세 이상

※ 단, 소방공무원(공채)의 경우 응시 하한 연령은 18세이다.

2009년부터 응시 상한 연령은 폐지되었다. 나이가 많아도 본인이 원한다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경찰(경찰청)·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계급 질서 등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 상한 연령을 유지하고 있다.

5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산직 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응시 자격이 인정된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7급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 시험 응시에도 인정된다.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소지 여부 판단은 당해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는 것이다.

2017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험생이 응시 요건이나 가산점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원서 접수 시 가산 자격증 등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www.cq.or.kr)에서,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q.or.kr)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니 시험 일정 및 원서 접수 등에 관해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나머지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시행].

6 신체검사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신체검사는 공채시험 최종 합격 후 임용 전에 실시하는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종전에 교정직, 철도경찰직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던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폐지되었다. 6급 이하 교정·철도경찰직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모집제

1 임용 예정 기관·지역별 구분모집제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근무 예정 기관 또는 근무 예정 지역별로 구분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별 구분모집제는 지역 출신 인재를 발탁하여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연고지에서 공직생활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이다.

국가직 공무원도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전국을 하나의 모집단위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임용 예정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많은 신규 임용자들이 임용을 포기하기도 하고, 임용 후 사직을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부의 인력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기관별·지역별 구분모집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험 자체는 동일하지만 처음부터 특정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해당 지역에 응시한 사람끼리 경쟁하고 합격선도 그 해당 지역 자체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지역별 구분모집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당해 연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응시 요건 및 주요 내용 안내

모집 단위	주요 내용
7급 공채 기관 지역 구분모집	• 행정(일반행정)직에서 우정사업본부 구분모집이 있으나 거주지 제한 요건을 두는 지역별 구분모집은 없음. *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전국,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장애인 • 우정사업본부에 배치 임용
9급 공채 기관 지역 구분모집 (공통,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당해 연도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 자격이 인정됨. * 거주지 요건에 대한 판단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3개월 이상)을 확인하며, 원서 접수일이나 필기시험일과는 관련 없음. • 다만, 서울·인천·경기 지역 모집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임용됨. • 기관별로 모집하면서 지역을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지방 소재 소속 기관에 임용됨. (예) 우정사업본부 강원 지역 모집 ⇨ 강원도 소재 우체국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된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시에는 전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러한 점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지역별 구분모집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국가직(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과 지방직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혼동하여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집 단위에 지원함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수험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응시 원서 접수 전에 공고문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거주지 제한 규정 비교(예시)

국가직 9급 지역 구분모집 응시 자격

- 당해 연도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vs

지방직 9급 거주지 제한(경기도)

- 당해 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 당해 연도 1. 1.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특히 지방직 9급 거주지 제한 요건은 시·도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국 모집과 지역별 구분모집 비교

구분	거주지 요건	근무 예정 지역	응시 지역
전국 모집	제한 없음	임용 예정 부처의 사정에 따라 각 지역으로 발령	자유롭게 응시 지역 선택 가능 (응시 지역은 주민등록지, 발령 지역 등과 관련 없음)
지역별 구분모집	거주지 (주민등록) 제한 있음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구분모집 지역 내의 국가 일선기관에 임용	구분모집 지역에서 응시 (여러 개의 시도가 하나의 구분모집으로 묶인 경우 그중 응시를 원하는 시·도 선택 가능)

2 장애인 구분모집제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선발 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 직렬 등을 제외한 직렬에서만 시행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중복 접수는 할 수 없다.

3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선발 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고,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증명서(수급 기간 명시) 또는 보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수급(보호) 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우선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자신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보호) 기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교정·보호 직렬 및 성별 구분모집 직렬은 제외)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에서 적용되며,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 단위에 한해 적용된다.

그밖에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필요 시 시험 계획 공고문에 명시하여 적용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요건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	①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 후보자: 과락자를 제외하고 합격선 -2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②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과락자를 제외하고 합격선 -3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 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요건	제2차 시험(7·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적용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① 시험령 제23조 제5항, 제23조의 3 제5항, 제25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하고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 인원내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내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② 균형 인사 지침(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 ②-1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 인원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 인원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 처리 ※ 이때, 동점자 전원을 추가 합격시험에 따라 목표 인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②-2 다만, 제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제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 이때, 동점자 전원을 추가 합격시험에 따라 우수 인원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필기시험 합격 예정 인원 중 어느 한 성이 채용 목표 비율(30%, 검찰사무 직렬은 2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그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선발하는 제도이므로, 기존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남성이 동 제도를 적용받아 합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성만을 우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다.

물론 면접시험 응시 인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만 이런 경우 면접시험에서도 일정 인원(선발 예정 인원×30%-필기시험 합격선 이상의 여성 합격자 수) 범위 내에서 최종 합격 인원이 늘어나게 되므로 다른 한 성별에 과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응시자가 선택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발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추가 합격의 행운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알아 두면 유용한 제도라 할 것이다.

5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인재가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가 바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이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적용되는 시험은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이다. 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 단위에서 적용되며, 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를 말한다. 지방학교는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 이하의 다음의 학교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로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 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은 지방학교에 포함
-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연세대 원주캠퍼스(지방학교에 해당),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지방학교에 비해당)
- 「한국과학기술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학교 중 지방에 소재하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특별법으로 설치된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 제3사관학교와 외국학교(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포함)는 지방대학에서 제외된다.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다음의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는 해당
 - 「고등교육법」상의 지방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서울 지역 대학 이외의 지역 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졸업예정자: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 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서 졸업 학점에 도달된 자
- ② 지방학교 중퇴가 최종 학력인 자
- ③ 지방대학 재학 또는 휴학자의 경우
 -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지방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서울 지역 대학 이외의 지역 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 중인 자는 해당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 편·입학자는 제외
- ④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서울 소재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
 - 지방 소재 학교가 서울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

⑤ 지방인재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지방학교일 경우 해당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 학위 취득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내지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검정고시 합격자

⑥ 기타 지방인재에 해당되는 경우

- 최종 학력이 「초·중등교육법」상의 초·중등교육 이하인 경우는 최종 출신학교가 지방 소재지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 면제를 받는 등의 사유로 학력이 없는 경우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전체 기간의 1/2을 초과하는 사람
-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는 중퇴한 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지방 소재지인 사람
- 아래에 열거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또는 열거된 학력의 보유자는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지방학교인 자
※ 대학원, 사이버대학 및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 독학 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

지방인재로 인정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차 시험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의 채용 목표 인원은 시험 실시 단계별로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의 20%(7급 30%)를 곱한 인원수이다. 채용 목표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 합격은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의 10%(7급 5%)를 곱한 인원수로 제한한다(추가 합격 상한).

※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5급 공채시험 예시: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이 100명인 경우, 추가 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가 15명(15%)인 경우에도 추가 합격자는 5명(5%)을 넘을 수 없음.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적용 방법(7급 공채 기준)

필기 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방법	요건	지방인재가 시험 실시 단계별 채용 목표 인원내 미달한 경우
	7급 공채	과락자를 제외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채용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
면접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방법	요건	제2차 시험에서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킨 경우
	적용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① 시험령 제23조 제5항, 제23조의 3 제5항, 제25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하고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 인원내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내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② 균형 인사 지침(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 ②-1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목표 인원내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 처리하고, 이 경우에도 지방인재가 여전히 목표 인원내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 처리 ※ 이때, 지방인재 추가 합격 상한 인원(5급·외교관후보자: 당초 합격 인원×10%, 7급: 당초 합격인원×5%)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점자 전원을 추가 합격시킴에 따라 추가 합격 상한 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함.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②-2 제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지방인재가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인재가 아닌 자를 차례로 ‘제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지방인재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 동점자 전원을 추가 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채용 목표 인원내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가 탈락되는 제도는 아니다.



수험생이 자주 하는 질문 FAQ

Q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지방대 출신만 우대하는데,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닌가요?

A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 중 지방인재가 채용목표비율(2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기존 합격선에 든 비 지방인재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 지방인재가 손해를 보는 제도는 아닌 것이다. 물론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면접시험에서도 일정인원(선발예정인원×20% - 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 수) 범위 내에서 최종 합격인원이 늘어나므로 비 지방인재 응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다.

Q 각 대학별 분교는 지방학교로 인정되나요?

A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에 한해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 인정되어 지방학교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므로 지방학교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2014. 1월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등이다.

Q 어떤 수험생이 지방인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접위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나요?

A 지방인재 합격자가 채용 목표인원 및 추가 합격 상한의 목표 인원 미달되지 않도록 면접위원들에게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기는 하지만, 어떤 수험생이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사전에 면접위원에게 알려줄 경우 면접시험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실패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 조슈아 J. 마린 -

4 가산점 제도

공무원 시험에서 1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크다. 이 1점으로 합격이 좌우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설명하는 가산점 제도도 반드시 활용하여 합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은 90% 이상이 가산점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합격자 중 약 90% 내외가 가산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산점 없이 합격한 사람은 10% 내외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가산 특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취업 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있다. 전자는 대상자에 해당하여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이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후자는 자신이 노력하는 여하에 달린 것이므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미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두는 것이 좋겠다.

가산 특전 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분	가산 비율	비고
취업 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1개의 자격증만 인정)	

※ 2017년 국가직 시험부터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점은 폐지됨.
※ 국가직 7·9급 공채 기준

1 취업 지원 대상자 가산 특전 제도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의 적용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이거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인 경우이다.

가산 방법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과락이 아닌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취업 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 서울시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의사상자 가산점 제도

의사상자 가점의 적용 대상은 국가직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6조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이며, 지방직·서울시 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4조2에 의한 의사자 등이다.

가산 방법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과락이 아닌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사상자 등록 여부, 가산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직렬	가산 대상 자격증	가산 비율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변호사, 변리사	5%
행정직(교육행정)	변호사	
행정직(회계)	공인회계사	
행정직(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정직(고용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직업상담직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변호사, 법무사	
검찰직·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통계직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가산)	

□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 비율	5%	3%	5%	3%

5 개별 공무원 시험 안내

1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국가직/지방직·서울시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국가직·지방직·서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지방직·서울시 시험일 동일).

9급 국가직 시험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인 반면, 지방직 시험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주관하고 선발하는 시험이다. 9급 국가직 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이 있어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 제한 요건과 혼동하기도 하는데, 수험생들은 해당 지방직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 자격 요건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① 시험 방법

서울시 시험 일부 과목을 제외한 각 지방직 필기시험 문제는 인사혁신처가 위탁받아 출제하기 때문에 국가직 필기시험과 문제 유형이 매우 유사하다.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은 기본적으로 4지 1택형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20문항으로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 시간은 100분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했지만, 타 시·도와 동일 날짜에 필기시험을 시행함에 따라, 2020년부터 일부 과목을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고 있다.

국가직 시험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gosi.kr), 지방직 시험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local.gosi.go.kr)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gosi.seoul.go.kr)를 통해 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여기에서 시험 공고도 확인해야 한다.

② 지방직 거주지 제한 요건

①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둘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③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행정9급(일반행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과 ㉡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군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군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경기도 외 강원도, 경상남·북도 등 지역별로 거주지 제한 예외 요건이 있으며, 내용이 지역별로 상이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게 되면 당해 지방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출생, 주소 변경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현재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기도 지역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단, 거주지 제한 요건이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응시 전에 해당 지자체별 시험 공고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2021년도부터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 7급 및 8·9급 공개경쟁과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 접수는 불가하니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2022년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서울시 시험 비교(9급 기준)

구분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주관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시험 공고 시기	매년 초(1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공고
거주지 제한	없음(지역별 구분모집 예외)	있음(서울시 제외)
필기시험 일시 (2022년 기준)	4월 2일	6월 18일
필기시험 출제 기관	인사혁신처(지방직·서울시의 일부 직렬 과목 제외)	
필기시험 개요	• 5과목 • 과목당 20문항으로 구성(총 100문항)	
필기시험 문제 형태	4지 1택형	
필기시험 합격선	전국 공통(지역별 구분모집제 제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면접시험 시행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합격 후 근무처	중앙 부처 또는 중앙 부처 하급 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하급 기관

※ 2020년부터 서울시 시험은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 모두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출제

그동안 서울시는 다른 지방직과는 달리 인사혁신처에 출제를 위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 등이 국가직이나 타 지방직 시험과 상이하였으므로 별도의 대비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고 있다(일반행정 과목은 인사혁신처가 모두 출제).

② 응시 자격

서울시 시험은 다른 지방직 시험과 다르게 응시 자격에 거주지 제한 요건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이렇듯 시험 별로 출제 경향 및 시험 일정, 응시 조건 등이 상이하니,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력 및 경력 제한은 없으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제한이 있다(단, 교정·보호직은 20세 이상).

또한 전산직 응시자는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③ 시험 과목

■ 국가직 9급 필기시험 과목(2022년 기준)

직렬(직류)	시험과목(선택형 필기)
행정직(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직(고용노동)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행정직(교육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직(선거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행정법총론
직업상담직(직업상담)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세무직(세무)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관세직(관세)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통계직(통계)	국어, 영어, 한국사,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교정직(교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보호직(보호)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직(검찰)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마약수사직(마약수사)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철도경찰직(철도경찰)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공업직(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학)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업직(산림자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시설직(일반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시설조경)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방재안전직(방재안전)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전산직(전산개발)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전산직(정보보호)	국어, 영어, 한국사,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방송통신직(전송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 예정 인원은 정부의 인력 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gosi.kr)를 통하여 공고됨.

④ 경쟁률 및 합격선

■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선 및 최종합격자(일반 모집)

구 분	선발 예정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필 기 합격인원	최 종 합격인원
전 모집단위 합계	5,672	165,524	127,643	—	7,456	6,126
일반모집 계	5,188	160,817	124,232	—	7,022	5,785
행정(일반행정 전국:일반)	456	42,828	32,890	91.00	528	504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233	13,999	10,803	—	324	269
서울·인천·경기	10	2,499	1,701	91.00	14	11
강원	30	1,133	870	85.00	41	31
대전·세종·충남·충북	36	2,274	1,837	89.00	56	49
광주·전남	41	1,928	1,535	88.00	56	50
전북	28	1,075	879	86.00	40	33
대구·경북	45	2,482	1,964	89.00	65	47
부산	5	587	409	88.00	8	6
				/86.00(양성)		
울산·경남	31	1,711	1,350	89.00	36	34
제주	7	310	258	90.00	8	8
행정(우정사업본부 지역:일반)	573	14,100	11,469	—	781	632
서울	90	1,842	1,419	88.00	119	108
				/87.00(양성)		
인천·경기	149	3,564	2,891	88.00	204	150
강원	32	549	424	83.00	43	36
대전·세종·충남·충북	88	2,013	1,675	86.00	117	93
광주·전남	44	1,253	1,013	87.00	58	45
전북	49	901	750	84.00	69	53
대구·경북	42	1,615	1,341	88.00	60	44
부산·울산	32	1,134	942	88.00	46	42
				/87.00(양성)		
경남	45	1,145	959	87.00	61	59
제주	2	84	73	89.00	4	2
행정(경찰청:일반)	38	8,909	7,122	89.00	427	386
				/88.00(양성)		
행정(고용노동:일반)	469	3,732	2,887	85.00	694	545
				/84.00(양성)		
행정(교육행정:일반)	71	16,295	13,004	94.00	121	88
				/92.00(양성)		
행정(선거행정:일반)	60	1,199	844	88.00	91	62
직업상담(직업상담:일반)	125	2,651	1,910	96.00	165	152
				/93.00(양성)		
세무(세무:일반)	850	10,956	8,484	80.00	1,059	945
관세(관세:일반)	38	1,996	1,649	93.00	50	48
				/91.00(양성)		
통계(통계:일반)	47	887	686	94.00	59	51
교정(교정:남)	705	4,764	3,679	74.00	1,000	711

교정(교정:여)	118	1,365	1,075	80.00	171	125
보호(보호:남)	137	1,419	1,074	76.00	191	143
보호(보호:여)	59	1,816	1,347	80.00	73	63
검찰(검찰:일반)	248	7,538	5,819	92.00	339	305
			/91.00(양성)			
마약수사(마약수사:일반)	19	486	323	91.00	26	23
			/89.00(양성)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일반)	17	2,132	1,610	93.00	25	21
			/91.00(양성)			
철도경찰(철도경찰:일반)	19	358	227	84.00	29	24
공업(일반기계:일반)	68	2,492	1,853	91.00	88	81
			/89.00(양성)			
공업(전기:일반)	52	2,419	1,853	88.00	85	73
			/85.00(양성)			
공업(화공:일반)	15	1,432	1,088	89.00	20	16
농업(일반농업:일반)	46	2,816	2,158	92.00	69	60
			/91.00(양성)			
임업(산림자원:일반)	47	1,616	1,252	85.00	73	55
시설(일반토목:일반)	79	4,189	3,147	80.00	112	91
			/79.00(양성)			
시설(건축:일반)	41	2,788	2,023	87.00	62	46
시설(시설조경:일반)	9	521	407	89.00	14	10
			/88.00(양성)			
방재안전(방재안전)	5	378	231	81.00	8	5
전산(전산개발:일반)	188	3,464	2,649	82.00	264	192
전산(정보보호:일반)	8	305	176	72.00	11	8
방송통신(전송기술:일반)	48	967	673	81.00	63	51
장애인 계	323	2,118	1,547	—	213	175
행정(일반행정 전국·장애인)	38	594	433	57.00	51	39
행정(일반행정 지역·장애인)	19	339	247	—	20	13
행정(우정사업본부 지역 장애인)	47	224	166	—	23	22
행정(경찰청:장애인)	28	234	166	51.00	35	29
행정(고용노동:장애인)	40	102	74	49.00	13	13
행정(교육행정:장애인)	5	231	176	75.00	6	6
행정(선거행정:장애인)	5	56	36	65.00	6	5
직업상담(직업상담:장애인)	11	41	28	53.00	11	10
세무(세무:장애인)	73	92	66	52.00	15	14
관세(관세:장애인)	4	40	28	52.00	3	3
통계(통계:장애인)	4	8	7	67.00	2	1
공업(일반기계:장애인)	5	20	13	60.00	3	2
공업(전기:장애인)	5	10	7	63.00	3	1
공업(화공:장애인)	1	7	7	50.00	2	1
농업(일반농업:장애인)	4	23	19	65.00	3	3
임업(산림자원:장애인)	4	8	8	전원과락	—	—
시설(일반토목:장애인)	6	5	5	전원과락	—	—
시설(건축:장애인)	3	19	17	56.00	4	3
시설(시설조경:장애인)	1	—	—	미출원	—	—

전산(전산개발:장애인)	15	49	31	45.00	11	9
전산(정보보호:장애인)	1	7	6	54.00	2	1
방송통신(전송기술:장애인)	4	9	7	전원과락	—	—
저소득층 계	161	2,589	1,864	—	221	166
행정(일반행정 전국·저소득)	15	776	564	83.00	23	15
행정(우정사업본부 전국·저소득)	19	381	287	75.00	29	21
행정(경찰청:저소득)	11	227	161	81.00	15	12
			/80.00(양성)			
행정(고용노동:저소득)	16	80	52	55.00	16	14
행정(교육행정:저소득)	3	199	138	86.00	4	3
행정(선거행정:저소득)	2	25	22	82.00	3	2
직업상담(직업상담:저소득)	4	40	25	81.00	6	6
세무(세무:저소득)	27	167	116	50.00	31	28
관세(관세:저소득)	1	16	14	51.00	2	1
통계(통계:저소득)	2	16	13	66.00	3	2
교정(교정:저소득)	25	156	116	56.00	36	25
보호(보호:저소득)	5	81	47	61.00	7	5
검찰(검찰:저소득)	7	139	98	87.00	9	8
마약수사(마약수사:저소득)	1	11	8	84.00	2	1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저소득)	1	21	15	64.00	2	1
철도경찰(철도경찰:저소득)	1	7	5	51.00	1	1
공업(일반기계:저소득)	2	24	15	62.00	3	2
공업(전기:저소득)	2	33	23	80.00	3	2
공업(화공:저소득)	1	15	10	62.00	2	1
농업(일반농업:저소득)	2	30	25	74.00	3	2
임업(산림자원:저소득)	2	18	15	50.00	3	2
시설(일반토목:저소득)	3	35	31	60.00	4	3
시설(건축:저소득)	1	26	20	77.00	2	1
전산(전산개발:저소득)	6	49	33	66.00	9	6
방송통신(전송기술:저소득)	2	17	11	69.00	3	2

2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국가직/지방직·서울시

흔히 주사보, 기사보라 불리는 7급 공무원들은 중앙 부처에서는 초급 직원이지만 하급 기관에서는 비중이 커서 지방 기관인 시청이나 구청 각 과의 핵심이 되는 선임 직원들이다. 7급 공무원이 8·9급 직원들을 통솔한다. 7급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 수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나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여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시험이다. 9급과 마찬가지로 국가직·지방직·서울시 시험으로 나뉘며, 2021년부터 1차 공직적격성 평가(PSAT), 영어(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 전문 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바뀌었다.

2022년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서울시 시험 비교(7급 기준)

구분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주관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시험 공고 시기	매년 초(1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공고		
거주지 제한	없음	지방직 있음(서울시 제외)		
필기시험 일시 (2022년 기준)	7월 23일	10월 29일		
필기시험 출제 기관	인사혁신처(지방직·서울시의 일부 직렬 과목 제외)			
필기시험 개요 (7급 행정 기준)	공통과목(1차) PSAT	전문과목(2차) 헌법,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필수와목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학, 행정법	전문과목(2차) 경제학, 지방자 치론, 지역개발론 중 1개
필기시험 문제 형태	4지 1택형			
필기시험 합격선	전국공통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면접시험 시행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합격 후 근무처	중앙 부처 또는 중앙 부처 하급 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하급 기관	

※ 2020년부터 서울시 시험은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 모두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출제

① 시험 방법

2021년부터 1차 공직적격성 평가(PAST),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 전문 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뀌었다.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불합격 처리된다. 3차 면접시험은 면접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해 “미흡”으로 평정한 응시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된다.

단,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 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일정은 국가직·지방직·서울시가 각각 다르고, 매년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시험 시행 기관이 발표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가직 시험은 매년 초에 인사혁신처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를 통해 공고한다. 지방직 시험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에는 원서 접수 일정, 방법, 응시 자격, 모집 인원 및 직렬, 시험 과목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② 응시 자격

학력 및 경력 제한은 없다. 다만 응시 연령 하한선에는 제한이 있다(20세 이상). 단, 전산직 응시자는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 7급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9급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 응시에도 인정

7급 지방직(서울시 제외)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이 있다. 내용은 9급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 지방직 거주지 제한 요건

- ①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 ②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지역별로 거주지 제한 예외 요건이 있으며, 내용이 지역별로 상이함.

③ 시험 과목

■ 국가직 7급 필기시험 과목(2022년 기준)

직렬(직류)	시험 과목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	제2차 시험(선택형 필기)
행정직(일반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인사조직)	"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행정직(재경)	"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행정직(고용노동)	"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행정직(교육행정)	"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행정직(회계)	"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행정직(선거행정)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세무직(세무)	"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관세직(관세)	"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통계직(통계)	"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감사직(감사)	"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교정직(교정)	"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보호직(보호)	"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검찰직(검찰)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공업직(일반기계)	"	물리학개론, 기계공학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공업직(전기)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농업직(일반농업)	"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임업직(산림자원)	"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시설직(일반토목)	"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설직(건축)	"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방재안전직 (방재안전)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전산직(전산개발)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외무영사직 (외무영사)	"	필수(3):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 예정 인원은 정부의 인력 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gosi.kr)를 통하여 공고됨.

앞서 언급했듯이 2021년부터 7급 국가직 공채 선발 방식이 바뀌게 된다. 기존 1·2차 시험(필기시험 병합 실시)과 3차 시험(면접시험)으로 진행되던 방식이 1차 공직적격성 평가(PSAT),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 전문 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바뀌었다.

④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합격선 및 합격인원 현황

□ 일반 모집 : 757명 <27개 모집단위>

모집 단위	선발 예정 인원	출원 인원	응시 인원	2021년도		비고
				합격선 (지방/양성)	합격인원 (지방/양성)	
전 모집단위 합계	815	38,947	24,723	-	5,758 (185/32)	-
일반 모집 계	757	38,533	24,470	-	5,638 (185/32)	-
행정(일반행정:일반)	215	14,810	9,537	70.33 (67.66/-)	1,586 (81/-)	
행정(우정사업본부:일반)	16	542	316	62.66 (60.00/60.00)	119 (5/6)	
행정(인사조직)	3	791	341	68.00	25	
행정(재경:일반)	14	389	246	62.66 (60.00/-)	103 (5/-)	
행정(고용노동:일반)	37	1,188	741	55.66 (53.33/-)	266 (12/-)	
행정(교육행정)	5	689	356	66.66	36	
행정(회계)	5	117	74	54.66	35	
행정(선거행정:일반)	9	871	494	65.33	67	
세무(세무:일반)	136	3,371	2,245	53.33 (50.66/-)	1,046 (42/-)	
관세(관세:일반)	5	392	246	57.33	38	
통계(통계:일반)	13	638	465	76.00 (73.33/73.33)	93 (7/6)	
감사(감사:일반)	11	970	662	69.00 (66.66/-)	89 (9/-)	
교정(교정)	30	833	536	46.66	224	
보호(보호)	5	162	84	49.33	38	
검찰(검찰)	10	1,823	1,039	69.33 (66.66/-)	74 (7/-)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	5	835	563	68.00	40	
공업(일반기계:일반)	42	1,092	672	57.33 (-/54.66)	308 (-/11)	
공업(전기:일반)	16	1,150	563	65.33 (-/62.66)	116 (-/6)	
공업(화공:일반)	11	847	509	70.56 (69.33/68.00)	86 (6/3)	
농업(일반농업)	3	471	255	69.33	25	
임업(산림자원)	5	260	141	57.33	38	
시설(일반토목:일반)	27	588	322	48	206	
시설(건축:일반)	28	621	332	41.33	201	
방재안전(방재안전:일반)	6	120	72	42.66	40	
전산(전산개발:일반)	42	1,302	795	52	320	
방송통신(전송기술:일반)	17	307	191	40	125	
외무영사(외무영사:일반)	41	3,354	2,673	67.66 (65.33/-)	294 (11/-)	

직렬별로 합격선에 차이가 있고 출원 인원 및 응시 인원도 상이하다. 물론 경쟁률이나 출원 인원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직렬을 선택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의 합격선이 어느 정도 선에서 설정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알아보고 목표 점수를 설정할 때 참고하여 합격선보다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3 사법공무원-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공채 시험은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 9급과 법원행정 고등고시가 있는데, 여기서는 9급 공채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학력·경력 : 제한 없음.
- 거주지(주소) : 제한 없음.

2 시험 방법

-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인성검사 / 면접시험

3 1·2차 시험과목(과목당 25문항)

법원사무직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 소송법	형법	형사 소송법
등기사무직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 소송법	상법	부동산 등기법
시험시간	1교시(100분) 10:00 ~ 11:40				2교시(100분) 14:00 ~ 15:40			

*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4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 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함.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cm×4.5cm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 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cm×4.5cm)로 준비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됨.

- 접수 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5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제1·2차 시험(병합 실시)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시험장소 공고일'에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공고함), 선택한 응시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해당란에 이를 체크하여야 한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 직렬, 응시 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취소 마감일까지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준다.
- 응시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의 '원서접수 내역' 화면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6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사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단,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의사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는 제1·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구분	의사자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가점비율(%)	5.0	3.0	

※ 취업보호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 대상자와 취업보호 대상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취업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에 확인하여야 함.

■ 자격증 소지자

법원공무원규칙 제60조의2 제1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제1·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대상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가점비율(%)	5.0

※ 가산점 인정 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을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취업보호 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가산특전을 받아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를 제1·2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임용 후 근무처 : 법원행정처, 대법원 및 전국 지방 법원 이하 산하기관
-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된다.
- 필기시험 일시 : 6월 말 또는 7월 초
- 시험 주관 기관 : 법원행정처

■ 최근 3년간 채용 인원 및 경쟁률

법원사무직

구분	등기사무직	응시인원	최종합격인원(여)	경쟁률	컷라인
2020년	6,326	4,514	207(138)	30.5:1	84
2021년	6,467	4,488	293(208)	22:1	81
2022년	5,682		350()	16.2:1	

등기사무직

구분	등기사무직	응시인원	최종 합격 인원	경쟁률	컷라인
2020년	547	289	26(10)	21:1	71.5
2021년	571	294	22(10)	25.9:1	74
2022년	587		27()	21.7:1	

4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이 되는 방법으로는 1년에 평균 두 차례 정도 시행되는 순경 공채, 경력경쟁 채용, 간부후보생 시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022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채용 인원은 1차·2차 1,787명으로 대규모 시험에 해당한다. 특히 2022년부터 시험 과목이 변경되고 영어 및 한국사가 능력검정시험으로 바뀌어 격변이 예고된다. 2022년 경찰공무원 시험부터 헌법과 형사법 그리고 경찰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으며, 한국사는 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는 토익 기준 55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업무의 특성상 체력 검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응시 연령에도 상한(일반순경:18세 이상 40세 이하, 간부후보생:21세 이상 40세 이하)이 있다. 또한 운전면허(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매년 초에 경찰청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gosi.police.go.kr)를 통해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응시 요건, 시험 절차 및 방법 등은 공고일에 공지되는 채용시험 계획을 반드시 참조하기 바란다.

1 경찰간부후보생(2022 제2기 선발공고 기준)

□ 응시 자격

- 응시 연령: 21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군복무(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요원,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세 연장,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세 연장,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세 연장
- 학력에는 제한이 없음.

- 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6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체 조건

구분	합격 기준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TBPE) 검사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색신 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약도 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 자격 인정함. 색약 보정렌즈는 사용 금지되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청력	정상(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사시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사지의 완전성·사시·문신 등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채용시험 계획 공고 시 공고문을 참조하기 바람.

□ 시험 절차

시험구분	시험내용
제1차 시험 (필기시험)	총 18개 과목(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40문항)
제2차 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50m달리기, 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450문항, 130분)
서류전형	
제3차 시험 (면접시험)	1단계 면접(집단 면접, 10점 배점) > 2단계 면접(개별 면접, 10점 배점) > 가산점(5점 배점)

필기시험 과목

구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과목	배점(점)	과목	배점(점)	과목	배점(점)
공통(2)	형사법	120	형사법	120	형사법	120
	헌법	60	헌법	60	헌법	60
필수(2)	경찰학	120	세법개론	80	정보보호론	80
	범죄학	60	회계학	80	시스템·네트워크보안	80
선택(택1)	행정법	40	상법총칙	60	데이터베이스론	60
	행정학	40	경제학	60	통신이론	60
	민법총칙	40	통계학	60	소프트웨어공학	60
			재정학	60		
검정제	한국사·영어					

※ 한국사·영어 과목은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보되,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미반영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필기시험 50%, 체력 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가산점 5% 포함)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순경 공채(일반순경, 101단)

응시 자격

- 응시 연령: 18세 이상 40세 이하 군복무(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 판정 검사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2세, 2년 이상인 경우는 3세 응시 상한 연령을 연장함.
- 병역: 제한 없음
- 운전면허: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해야 함.

신체 조건

구분	합격 기준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각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의 검사 결과 약도 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 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 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사시(斜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상기 신체 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 의함.

시험 절차

- 시험 공고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사이트에 공고된다.
- 원서 접수는 경찰청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시험 단계는 필기시험 ⇨ 신체·체력·적성 검사 ⇨ 응시 자격 등 심사 ⇨ 면접시험 순으로 치른다.

시험 방법

- 필기시험: 객관식 5과목
- 신체검사: 신체 조건 등 경찰관으로서의 신체 적합성 검사
- 체력 검사: 5종목(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 적성검사: 성격·인재상·경찰 윤리 검사(450 문항, 130분)
- 응시 자격 등 심사: 제출 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 요건 등 적격성 심사
- 면접시험: 의사 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 지식(1단계 집단 면접),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2단계 개별 면접)

필기시험 과목

능력검정시험	영어, 한국사
필수과목	헌법(20문항 50점), 형사법(40문항 100점), 경찰학(40문항 100점)

헌법·형사법·경찰학 시험범위 및 출제 비율

과목	출제 비율
헌법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
경찰학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50%, 체력 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가산점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순경 경채(경찰행정학과 특채)

응시 자격

- 응시 연령: 20세 이상 40세 이하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 경찰행정 특채 응시 자격에 있는 병역필 규정이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될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채용 시험 계획 공고 시 공고문을 참조하기 바람.

○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체포술(무도·사격 포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학, 경찰학,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외사론,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연구 방법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정책)론, 소년범죄론, 자치경찰론, 국가정보학, 사회병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

필기시험 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 형사법(40문항), 경찰학(40문항), 범죄학(20문항)

5 소방공무원

화재 진압 업무를 주로 하는 소방공무원은 방호 업무, 예방 업무, 지도 업무, 야간 소방, 구급 업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이다. 2020년 4월 1일부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최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5일 근무, 격무 부서 3부제 도입 등의 대책이 추진되면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연간 모집 인원이 많고, 추가 채용까지 늘어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특성상 체력 검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응시 연령 상한선이 있다. 운전면허 1종 소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간부후보생과 소방사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① 소방간부후보생

응시 자격

- 응시 연령: 21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여

응시 상한 연령 연장

군복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 기간	1세	2세	3세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학력(경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신체 조건

구분	합격 기준
체격	양팔·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함.
색신(色神)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이 아니어야 함.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 금지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병역법」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필기시험 과목

구분	과목
인문사회 계열	필수(3과목) 헌법, 한국사, 행정법
	선택(2과목)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중 택 2
자연 계열	필수(3과목) 헌법, 한국사, 자연과학개론
	선택(2과목)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중 택 2

※ 영어는 토를, 토익, 텡스, 지텔프, 플렉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완화

시험 종류	토를		토익 (TOEIC)	텡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2018. 5. 12. 이전 실시	2018. 5. 12. 이후 실시		
응시에 필요한 기준 점수	490점 이상	58점 이상	625점 이상	520점 이상	280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520점 이상

- 시험은 총 125문항(과목당 25문항)으로 시험 시간은 총 125분이다.
- 합격 기준: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체력 시험

- 시험 종목: 악력 / 배근력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제자리멀리 뛰기 / 윗몸일으키기 / 왕복오래달리기 등 6종목
- 평가 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별표7 규정에 의함.
- 합격 기준: 6종목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도핑 테스트 실시: 체력 시험 종료 후 응시 인원의 7%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 신체검사

- 지정 의료 기관에서 단체로 실시
- 합격 기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의 별표5 규정에 의한 신체 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적성검사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
- 결과는 면접시험 참고 자료로 활용

□ 면접시험

단계	평가 요소
1단계(집단 면접)	전문 지식·기술과 그 응용 능력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단계(개별 면접)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 정신

- 합격 기준: 1단계(집단 면접)와 2단계(개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단, 5개의 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 요소에 대하여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와 1단계(집단 면접)와 2단계(개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 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 시험 성적 75%, 체력 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위에 따름.
-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에 의거 그 선발 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함.

2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과 경력경쟁 채용으로 나누어진다. 경력경쟁 채용은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나 경력, 학위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응시 자격

구분	내용
응시 연령	공개경쟁 채용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력경쟁 채용 20세 이상~40세 이하 소방 관련 학과,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응시 자격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가산 특전

- 취업 보호 대상자 및 취업 지원 대상자: 매 과목에서 과락이 아닌 사람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 취득 점수 + 각 시험별·단계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한다.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두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고 분야별로는 하나만(총 2개) 가산한다. 단, 자격증과 사무관리 가점을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다.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없는 응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공개경쟁 채용은 자격증 가산점 없음).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비율(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기준)

구분	5%	3%	1%
자격증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 분야의 기술사·기능장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 분야의 기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기능사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시험 방법 및 합격 기준

단계	내용	합격 기준
필기시험	공개경쟁 채용: 5과목 경력경쟁 채용: 3과목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체력 시험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신체검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 조건 및 건강 상태 검사(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체 조건 및 건강 상태가 적합한 자
면접시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증(1단계: 집단면접, 2단계: 개별면접)	면접 평가 요소별 심사 위원 점수 합산,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최종 합격자 결정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 합산 점수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면접시험은 1단계(집단 면접)와 2단계(개별 면접)로 진행되며 1단계 집단 면접에서는 전문 지식·기술과 그 응용 능력(10점),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10점),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을 평가한다. 2단계 개별 면접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20점),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10점)을 평가한다.

필기시험 과목

구분	시험 시간	시험과목
공개경쟁 채용	10:00~11:40(100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경력경쟁 채용	10:00~11:00(60분)	일반 소방사: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교·소방장: 국어, 영어, 소방관계법규 소방 (소방사) 소방 관련 학과: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 관계법규

※ 2022년부터 공채시험은 필수 5과목으로 변경되어 선택과목 특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에 따른 조정점수 적용 폐지

출제 범위

과목	출제범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1
생활영어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경제, 소방사)
소방관계법규	공채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경채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6 입법공무원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선발 후에는 국회 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 정책처 등에서 일하게 된다. 직급별로 시험을 구분해 보면 입법고시(5급), 8급 및 9급 공채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는 8급 및 9급 공채 시험 위주로 살펴보겠다.

① 8급 공채 시험

8급 공채 시험은 통상 4~6월에 시행되고 일반행정직을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 인원은 15명 내외이다(상황에 따라 변동). 8급 행정직 합격자의 경우 기본 교육(신임 실무자 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 정책처, 국회 입법 조사처의 각 부에 배치되게 된다. 국회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 자격은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험 과목
필기시험	1교시(85분): 국어·헌법·경제학 (각 과목 5지선다 25문항/시험 시간 170분)
	2교시(85분): 영어·행정법·행정학

② 9급 공채 시험

9급 공채 시험은 인원 충원 시기에 따라 직류별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속기직·경위직·방호직·사서직·전산직 등을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 채용 시스템 홈페이지(gosi.assembly.go.kr)를 참조하기 바란다.

응시 자격은 학력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직렬에서는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한다.

사서직	준사서 자격증 이상 소지자
속기직	한글속기 3급 이상 소지자
전산직	•기술사: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경위직, 방호직	•체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함.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이어야 함.

필기시험 과목

구분	속기	경위	사서
필기시험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시험시간 100분)	1. 국어 2. 영어 3. 한국사 4. 헌법 5. 행정학개론	1. 국어 2. 영어 3. 한국사 4. 헌법 5. 경호학개론	1. 국어 2. 영어 3. 한국사 4. 헌법 5. 정보학개론
전산	토목	건축	기계
1. 국어 2. 영어 3. 한국사 4. 컴퓨터일반 5. 정보보호론	1. 국어 2. 영어 3. 한국사 4. 응용역학개론 5. 토목설계	1. 국어 2. 영어 3. 한국사 4. 건축계획 5. 건축구조	1. 국어 2. 영어 3. 한국사 4. 기계일반 5. 기계설계
전기	통신기술	촬영	방송기술
1. 국어 2. 영어 3. 한국사 4. 전기이론 5. 전기기기	1. 국어 2. 영어 3. 한국사 4. 통신이론 5. 전자공학개론	1. 국어 2. 영어 3. 한국사 4. 방송학 5. 미디어론	1. 국어 2. 영어 3. 한국사 4. 전자공학개론 5. 방송통신공학

7 우정직 공무원

우정직(계리)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우정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담당 업무는 일선 우체국에서의 우체국 금융 업무·현업 창구(회계) 업무·현금 수납 등 각종 계산 관리 업무 및 우편 통계 관련 업무 등이다. 우정직(계리) 시험은 통상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나, 부정기적이므로 우정사업본부(koreapost.go.kr) 및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구분	내용
응시 요건	• 응시 연령: 18세 이상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응시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 불가
시험 방법	1차 필기시험(4과목 각 20문항 총 80문항) ⇨ 2차 면접시험
시험 과목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우편/금융상식, 컴퓨터일반(기초영어 포함)
시험 시행 기관	지방우정청

6 최근 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사항

1 2022년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개편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고교 과목이 폐지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되었다. 이에 따라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선택과목 조정점수제가 폐지되었다. 2022년 이후 수험생은 국어, 영어, 한 국사와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시험을 치르면 된다.

2022시험 제도 개편 후 원서접수 결과

모집분야별

구분		선발예정인원		접수인원		경쟁률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계		5,672	5,662	165,524	198,110	29.2	35.0
행정	소계	4,996	4,951	141,733	171,071	28.4	34.6
	일반	4,582	4,542	137,430	165,751	30.0	36.5
	장애인	274	272	1,961	2,524	7.2	9.3
	저소득	140	137	2,342	2,796	16.7	20.4
기술	소계	676	711	23,791	27,039	35.2	38.0
	일반	606	641	23,387	26,583	38.6	41.5
	장애인	49	48	157	193	3.2	4.0
	저소득	21	22	247	263	11.8	12.0

2 공채 시험(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추가 합격자 결정 제도

면접 응시 인원이 선발 인원 미달한 경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임용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에 추가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제2차 시험(7·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3차 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 사정이 발생하여 제3차 시험 응시자가 수가 선발 예정 인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과락자를 제외하고 제2차 시험 성적순에 의해 차례로 당초 합격 인원 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차 시험 응시자가 수가 선발 예정 인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과락자를 제외하고 필기시험(7·9급 공채만 해당) 성적순에 의해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한 후 별도의 제3차(면접) 시험을 실시한다.

2 임용 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최종 합격자 선발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 사정이 발생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기존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7·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선발한다.

정리해 보면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1	요건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제3차 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 시험 응시자가 수가 선발 예정 인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용 시험	5급 공채 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실시 방법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 시험 합격 인원 범위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유형 2	요건	제3차 시험 응시자가 수가 선발 예정 인원 미달하는 경우
	적용 시험	6급 이하 공채 시험
	실시 방법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 실시
유형 3	요건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 시험	5급 공채 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6급 이하 공채 시험
	실시 방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 결정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를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3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 및 추가 면접 실시 근거

1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

종전에는 오로지 면접시험 결과(면접 평가 하위자에 대해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면접시험 평가(우수, 보통, 미흡 중 하나의 등급 부여) 결과와 더불어 필기시험 성적(5급 공채의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 순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6급 이하 공채는 제25조)을 참조하기 바란다.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방식

면접시험 결과	필기 순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우수	부분 반영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단, 우수 등급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필기 성적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보통	반영	합격 또는 예비 합격 (우수 등급자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필기 성적순에 따라 합격자 결정)
미흡	미반영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② 추가 면접시험 시행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채 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면접시험(심층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면접시험일에 안내하는 기간 중에 추가 면접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탈락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국가직 공개 채용 면접시험 대폭 강화

□ 시행 목적

국가직 공무원 공개 채용 면접시험에 있어서 공직 가치관과 분야별 직무능력을 심층 검증하기 위해 면접 방식을 개편하기로 2015년 4월 10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였다.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을 지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공직 가치관과 직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 면접시험 응시 대상 증가(2015년 국가직 공개채용 면접시험부터 적용)

구분	내용
7·9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의 140% 수준에서 결정

※ 단, 모집 단위별 면접시험 응시 인원은 직렬별 특성이나 해당 모집의 필기 성적 분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면접시험 운영 방식 전면 개선

① 1인당 면접 시간 확대

구분	내용
7급 공개채용	집단토의 면접 도입
9급 공개채용	5분 스피치 평가 신설

② 관련 분야 전문가를 면접 위원으로 활용

구분	내용
시행 목적	효과적인 면접시험 진행과 공정한 평가 목적
면접 위원 후보자 풀	전·현직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인사 컨설팅 전문가 등
면접 위원 위촉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면접 위원 교육 강좌를 이수한 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

4 7·9급 공채 가산 특전 신청 및 적용 방식 개선

국가직 7·9급 공채 시험 원서 접수 시 가산점을 신청하거나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에 가산 비율을 표기하는 절차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국가직의 경우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접속하여 가산 특전 신청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취업 지원대상자 가점은 취업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가점 비율(5% 또는 10%)을 체크해야 한다. 자격증 가산점의 경우에는 자격증명 및 가산 비율을 체크해야 한다.

5 응시자 준수 사항 변경

2014년부터 OCR(이미지스캐너) 기기로 답안지를 판독하므로 연필, 샤프, 플러스펜, 적색펜 등 펜의 종류와 색깔에 상관없이 예비 마킹을 할 경우 중복 마킹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예비 마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한다. 평소 예비 마킹을 하던 습관이 있는 수험생들은 예비 마킹 없이도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한 번 작성한 답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완전히 지워야 하며, 답안지 수거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정액과 수정 스티커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종전에는 답안지에 수정 테이프 사용을 불허하였으나 2014년부터 국가직 시험(단,

사회복지직 제외)에서는 답안 표기를 수정할 때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 후 손으로 꼭 눌러야 할 것이다.

6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2014년 2월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이 시험 계획 공고문의 지원 자격을 충족했는지 스스로 진단·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었는데,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5급 공채, 7·9급 공채, 민간 경력 채용 등 3개 분야에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구성되며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홈페이지(gosi.kr)에 접속하여 하단 배너 중 응시 예정자 > 지원자격 자가진단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 자가진단 주요 항목

- 공통: 연령, 응시 결격 사유, 국적, 신체검사, 임용 유예, 시험 과락
- 5급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지역 구분모집 등
- 7·9급 공채: 장애인·저소득층·지역 구분모집, 임용 유예 등
- 민간 경력 채용: 관리자·일반 경력, 학위, 자격증

7 지방직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통합 출제

서울시에서는 7·9급 시험 문제를 자체적으로 출제해 왔는데, 2020년부터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고 있다. 7·9급 일반행정 직류 전체 과목 등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며,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가 동일한 날짜에 7·9급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8 2021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개편

2021년부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시험 실시·원서 접수 기관이 시·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으로 변경되고, 거주지 제한 없이 희망 근무 지역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응시 지역·분야 중복 접수는 불가하다.

2022년부터는 시험 과목이 변경되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가 필수과목이 되고, 선택과목 및 조정점수제가 폐지되었다.

9 2022년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개편

2022년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바뀌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헌법, 형사법, 경찰학이 필수과목이 되었다. 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는 순경 기준 토익 550점 이상, 한국사는 3급 이상이다.

10 2023년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응시 자격 변경

기존에는 선발 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응시 자격 요건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졸업자의 기준이 졸업일과 최종 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로 바뀌게 된다.

기존	변경(2023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
선발 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졸업 예정자: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 (2023년의 경우)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졸업자: 졸업일과 최종 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졸업 예정자: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 (2023년의 경우)

3

공무원 시험 똑똑하게 준비하기

1. 학원 200% 활용하기
2. 인터넷 강의 제대로 듣기
3. 과목별 공부 방법
4. 공부 계획 세우기
5. 합격을 부르는 노트 정리법

1 학원 200% 활용하기

1 학원 강의 수강, 꼭 필요할까?

공무원 시험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혼자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 수험 생활의 메카 노량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공부 방법에는 정해진 길이 없고, 왕도도 없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원 강의가 필요한 타입의 수험생 유형과 학원 강의의 득과 실, 학원 선택 방법, 학원 제대로 이용하기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 중 자신을 좀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체크해 보자.

나는 학창 시절 성적을 향상시켜 본 경험이 있다.

나는 한 번 책상 앞에 앉아 2시간 정도 집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나는 한 번 책을 읽으면 끝까지 잘 읽는 편이다.

나는 스스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아는 편이다.

나는 학습 계획을 잘 세우고 공부하는 편이다.

나는 책을 읽으면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잘 파악되는 편이다.

나는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편이다.

나는 공무원 시험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수험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다.

나는 서울, 경기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 완강하고 정해진 학습량을 충실히 이행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 선택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 40점 이상이면 독학을 하여도 괜찮은 수험생 타입이다. 자신의 점수가 30점 이상 40점 미만이라면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여 공부해도 적합한 수험생 타입이다. 만약 자신의 점수가 30점 미만이라면 학원 실강을 듣는 것이 적합한 타입이다.

학원 강의를 필요한 타입의 수험생 유형

공무원 시험에 처음 입문한 수험생이거나 혼자서 공부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수험생이라면 학원 강의를 추천한다. 공부 계획을 잘 세우지만 막상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의지박약형 수험생도 학원 강의를 적합하다. 학원에서 정해 준 커리큘럼을 따라 회독 수를 반복할수록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과 아닌 내용을 추려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이는 공부 범위를 한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수험 생활에 있어서 시행 착오를 줄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학으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원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경쟁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좀 더 강한 동기 부여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더 의지를 다지게 되는 효과도 있다.

2 학원 강의의 득과 실

종합반? 단과반? 그것이 문제로다

시중에 출간된 수험 생활 관련 교재들을 보면 종합반 강의가 꼭 필요한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책들이 많다. 학원에 상담하러 오는 수험생들만 보아도 “종합반 말고 단과반을 들으라고 하던데...”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종합반이 수험 생활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수험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부분이 자신과 잘 맞는 선생님의 강의와 공부 방식인데, 이 모든 것을 아울러 2개월 안에 정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종합반이다. 2개월 동안 5과목에 대한 1회독 완성과 동시에 출결 관리, 주간·월간 테스트를 통한 성적 관리, 1:1 개별 심층 상담 등을 통해 수험 생활과 학습 패턴을 조절·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앞으로 합격할 때까지의 수험 생활을 단축시켜 주고 무늬만 공시생인 채로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 주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더불어 2개월간의 수업을 통해 앞으로의 수험 계획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간혹 종합반을 건너뛰고 단과반부터 수강한 수험생이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된 고민거리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5과목을 다 공부하지 못했어요.”라는 것이다. 한 과목에 집중하는 공부는 종합반 이후 단계인 심화 단과반 과정에서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니 초시생이라면 종합반 수업을 통해 합격의 틀을 다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만약 듣고 싶은 과목, 듣고 싶은 선생님을 잘 알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또는 수험 생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험생이라면) 선택적으로 취향한 부분이나 좀 더 보충이 필요한 과목만을 단과반으로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학원 실강의 장점과 단점

학원 실강과 인터넷 강의(동영상 강의)는 강의의 질(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실강을 녹화해서 인터넷 강의 형태로 판매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학원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실강을 듣는 경우 자신이 수업에 몰입하는 강도, 피드백, 자신의 현 위치 파악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업의 몰입도 측면에서는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게 되는 경우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긴장감·집중력의 향상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피드백에서도 학원 실강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표시해 두고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에게 바로 질문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도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 바로 물어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자신의 현 위치 파악 측면에서도 쪽지시험·일간 테스트·주간 테스트 등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취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테스트를 통해서 학습 성취감을 올릴 수도 있고, 자칫하면 나태해질 수 있는 수험생활에서 경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유지시켜 준다.

학원 실강의 단점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강의료일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공무원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원 강의의 단가가 높은 점이 가장 부담스러울 것이다. 또한 강의 집중이 잘되는 앞자리를 선점하려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야 하는 경우도 많고, 만약 좋은 자리를 맡지 못한 경우에는 잘 보이지도, 잘 들리지도 않는 자리에서 수강해야 하는 것도 단점이다. 더구나 강의실 면적도 넓고, 수험생들이 꽉 들어찬 경우 옆자리 사람의 소음과 불필요한 냄새 등으로 인해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다.

3 학원 선택 방법

학원 선택 어떻게 해야 하나?

학원 실강을 듣기로 결정한 수험생에게 학원 선택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저기서 우리 학원이 1등 학원, 최다 합격생 배출 학원이라고 선전하는 가운데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할지는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먼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품을 팔아야 한다. 누가 추천해서, 누가 좋다고 해서 등 타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어떤 학원이 가장 좋은지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학원을 선택해야 한다. 학원 상담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선호하는 선생님 타입, 자습 공간 등 학습 환경, 수험 생활 관리 시스템 등을 차분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잘 맞는 학원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수험생의 빠른 합격을 위해서 학원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종합반, 단과반, 문제풀이반, 요약강의반, 마지막 마무리반 등을 순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선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서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학원을 선택하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며, 학원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것도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

4 학원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학원을 선택하되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학원 커리큘럼을 충실히 이행하는 성실한 수험생이라면 합격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 모두 이런 합격에 대한 염원을 안고 학원으로 오기도 발걸음을 옮길 것이다. 그러나 수험생이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학원을 선택하고 이용하되 전적으로 학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공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험 생활만큼 고독한 과정은 없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훌륭한 조연자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원에만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길은 장수생이 되는 지름길이다.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목표는 최단 기간에 합격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수험 기간은 짧으면 짧게 잡을수록 좋다. 수험생들 중에는 ‘시험은 내년이니까... 난 내년 시험에 올인할 거야...’ 하면서 당해 연도에 닦친 시험이 아닌 다음 해 시험을 목표로 삼는 수험생이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당장 목전에 닦친 시험 회차에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가능한 목표 수험 기간은 짧게 설정해야 한다. 1년 정도의 학습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에 합격을 판가름 낸다는 목표의식으로 도전해야 한다.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압축적으로 공무원 수험에 쏟아내고 그 이후에는 합격을 쟁취해 내야 한다.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라. 목표는 최단기간에 합격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자습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한다

학원을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정규 강의를 듣는 시간 외에 자기 혼자 공부하는 자습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한다. 하루 종일 강의만으로 채워지는 수험 생활은 '공부'했다고 볼 수 없는 시간이다. 결국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일 5시간 이상은 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학원 강의도 들을 필요 없다

학원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면 꼭 그날 배운 부분을 복습하고 점검해야 한다. 복습 없이 학원 강의만 듣고 지나간다면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무언가를 배운 후 망각이 시작되어 한 시간이 지나면 대략 56%를, 하루가 지나면 60%를, 일주일이 지나면 74% 정도를 잊어버린다고 한다.)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반복 학습을 통해 잊혀지지 않는 장기 기억으로 전이시켜야 한다. 이 과정이 바로 복습이다. 따라서 학원 강의를 충실히 들은 수험생이 오늘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은 그날 배운 부분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중요 부분을 가려내어 외울 것을 암기하는 것이다. 잊지 말자. 복습을 하지 않으려면 학원 강의도 들을 필요 없다는 사실을.

2 인터넷 강의 제대로 듣기

1 인강의 필요성

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인강의 최대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량진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동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학생이나, 본인의 신체 리듬과 학습 스타일에 맞추어 자기 주도적인 시간표를 구성하여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인강을 수강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량진 학원 강의는 보통 1시간에 10분 정도씩 쉬면서 3~4시간 이상을 연속으로 진행하는데, 공부 습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강의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학원의 시간표에 맞춰 2과목 이상을 하루에 모두 수강을 하고 나면 그날 실강에서 들은 내용을 바로 복습하기보다는 피곤을 달래는 데 시간을 흘려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뇌는 24시간이 지나면 빠른 속도로 전체 내용의 60%를 망각한다고 한다. 따라서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공부 습관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가 아닐 경우 무리하게 학원 시간표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하기보다는, 인강을 통해 본인의 페이스에 맞춘 학습 계획표대로 강의 수강과 복습을 병행하여 꾸준하게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② 반복해서 듣기 / 끊어 듣기 / 배속으로 듣기가 가능하다

- 인강은 수강 기간 동안 언제든지 반복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강의 수강 중 판서를 메모하느라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을 경우 다시 돌려서 그 부분을 반복할 수 있다.

- 실강의 경우 정해진 시간 동안 강의가 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뒷부분의 진도를 연속하여 수강해야 한다. 하지만, 인강은 끊어 듣기가 가능하므로 각자의 이해도에 맞게 차근차근 완벽히 이해하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 배속 조절 기능을 이용하여 집중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나 아는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집중도와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수준별, 유형별로 다양한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인강은 수준별 혹은 유형별로 커리큘럼이 보다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만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인강의 경우 학원에서 진행된 실강을 그대로 촬영하여 판매를 함과 동시에, 촬영된 영상 중 특정 파트만을 분리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강을 통해 [문법 + 어휘 + 독해] 파트 전 영역을 다루는 영어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한 이후에 문법 파트만 복습을 원할 경우, 인강으로 해당 기본이론 강의의 문법 파트 촬영 부분만 분리하여 판매하는 파트별 강의 수강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④ 비용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인강은 실강에 비해 대략 70~80% 수준에서 수강료가 형성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강의 수강이 가능하며, 교통비와 식비 등의 추가 발생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학원을 오고 가고, 앞자리에서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미리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훨씬 적어 보다 많은 에너지를 공부에 투입할 수 있다.

2 인강 선택법

① 어떤 강사의 수업을 들을 것인가?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따라서 시행착오 없이 자신에게 맞는 강사와 강의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수험 기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처음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소위 '1타' 강사의 강의를 무조건 믿고 선택하는 것이다.

많은 수험생의 선택을 받는 강의는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강의 퀄리티를 보장하지만 그렇다고 그 강의를 꼭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출발점'과 '취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영어 과목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독해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추천하는 강의라 하더라도, 정작 수능 수준의 기초 어휘가 선행되어 있지 않은 학생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초 어휘가 뒷받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무원 어휘와 독해 스킬을 학습한들 독해가 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적합한 강의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강사의 강의 스타일에 대한 본인의 '취향'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또 다른 예로 한국사 과목을 들자면,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히스토리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스타일의 강의를 어떠한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하는 한편, 또 어떠한 학생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설명하여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강사의 목소리, 억양, 강의 진행 속도 등에 대한 평가는 가지각색이다. 따라서 인강을 선택할 때에는 강사별 샘플 강의 또는 무료 특강을 수강하여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강의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과목별로 전체 교수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해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선택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 수험생 커뮤니티나 해당 강사의 홈페이지 내 수강 후기 등을 참고하여 비교 대상을 간추려 볼 수 있다.

다만,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수강 후기 등은 업체에서 수강생을 유도 하기 위한 홍보 작업일 수 있으므로, 비교 대상 교수진을 간추리는 정도로만 참고하되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최종 선택은 강의를 수강해 본 이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어떤 형태의 강의를 구매할 것인가?

최근에는 단과 또는 종합반 강의 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인강이 판매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상품을 잘 활용하면 수강료나 수강 기간 등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살펴보도록 하자.

▣ 박문각 프리패스 상품

박문각 프리패스 상품은 결제일로부터 1년(또는 6개월 선택 가능)간 과목별(9급 기준으로 5과목) 선택 교수의 모든 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 가능한 연간 회원반 개념의 상품이다. 여러 개의 단과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최대 90% 이상 수강료가 저렴하고 수강 기간이 1년으로 넉넉하게 제공이 된다는 점, 또한 패스 구입 시 과목별로 선택 교수의 모든 강의를 제공되므로 강의 수강에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가장 큰 장점이다. 따라서 수험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와 같이 앞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강의의 수가 많거나, 수강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수강하기를 원하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박문각 프리패스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박문각 프리패스 상품의 경우 과목별 선택 가능한 교수진에 본인이 수강을 원하는 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제공되는 강의의 수가 많은 만큼 본인에게 꼭 필요한 강의만을 선택 수강하는 변별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강 기간이 1년이나 된다는 것을 믿고, 강의 수강을 미루다 보면 오히려 수험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계획성 있고 규칙적인 강의 수강이 꼭 필요하다.

▣ 교수별 패스 상품

본인이 특정 강사 1명의 1년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를 원할 경우에는 교수별 패스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교수별 패스 상품의 경우 업체 및 강사에 따라 수강 기간 및 제공 강의의 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수강 기간은 1년 또는 다음 해 국가직 또는 서울시 시험일까지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강의의 경우 특정 교수의 전체 강의를 제공되거나 꼭 수강하여야 하는 필수 커리큘럼을 선별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가격은 보통 20~30만 원대에서 판매되고 있으므로, 특정 교수의 심화이론 강의 1개 + 기출문제풀이 강의 1개 + 동형 모의고사 강의 1개 정도만 수강하여도 단과로 개별 구입했을 때보다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강사의 단계별 커리큘럼을 모두 수강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교수별 패스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강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더 오랜 기간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패키지 강의

2개 이상의 강의를 10~3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묶어 판매하는 강의 유형이다. 이론 + 문제풀이 패키지와 같이 동일한 강사의 강의를 2개 이상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군무원 패키지와 같이 특정 시험 과목만을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가끔 5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수강 기간을 개별 단과 수강 기간보다 짧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3 인강 사용법

1 학습 로드맵

시기	강의 수강	학습 내용
1~2개월 차	이론입문 종합반	전 과목 개념 정리. 이 과정에서는 강의의 내용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려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개념을 파악하고 수업에서 강조하는 부분 위주로 핵심 사항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3~4개월 차	기본 + 심화이론 강의(1)	이 시기에는 다섯 혹은 일곱 과목 강의를 한꺼번에 수강하기보다는 어학 과목(국어·영어) 위주로 2~3과목, 혹은 3~4과목의 강의 정도만 수강하면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부 내용에 대한 암기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 시기에도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나머지 과목도 1~2개월 차에 수강한 종합반 강의를 토대로 최소한 주 1회 반복적으로 복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5~6개월 차	기본 + 심화이론 강의(2)	3~4개월 차에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3~4개월에 수강한 과목에 대한 복습을 함께 진행한다.
7~8개월 차	기출 + 단원별 문제풀이	기출문제 및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문제 유형 적응과 함께 취약한 파트를 확인하여 이론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한다. 이 시기에는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10개월 차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실전에 대비하여, 동일한 문제 형태와 시간 분배 연습을 통해 실력을 완성하여야 한다. 인강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오답노트의 암기를 병행하도록 한다.
11~12개월 차	테마별 특강 + 최종 마무리 특강	이 시기에는 최종 마무리 특강을 통해 과목별 핵심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한다. 또한 특정 파트에 대해 불안감이 남아 있다면, 테마별 특강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해당 파트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이와 더불어 기출문제와 오답노트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 한다.

2 효과적인 인강 학습 TIP

□ 유해 사이트 및 메신저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인강을 수강하다 보면 일시정지 기능을 이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어서 듣는다는 게 한없이 쉬게 되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강의 수강 도중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메신저 사용 등으로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해 사이트와 메신저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강의 집중모드 기능 등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다른 인터넷 창을 활성화할 수 없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 전원이 꺼지도록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집중력과 자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 온라인 스터디를 활용하자

인강을 혼자 진도에 맞추어 수강할 의지가 부족하다면, 온라인 스터디를 활용하자. 특히 국어 과목의 사자성어와 고유어 파트라든가, 영어 단어 암기는 스터디를 하지 않게 되면 확실히 게을러지기가 쉽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두기 위해 온라인 스터디 활용을 추천한다.

□ 인강을 수강하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학습하자

인강도 학원 시간을 정하듯 매일 아침 8~10시, 수요일 저녁 7~9시와 같이 본인이 가장 안정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들어야 한다. 정해진 시간 없이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완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덧 강의 수강 기간이 종료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간혹 인강 수강 시간을 학원 시간표에 맞추어 실강 진행일 다음날 해당 진도를 반드시 수강하겠다고 빠듯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보통 인강은 실강이 진행된 후 1~2일 이내 업로드가 되지만, 가끔 파일 변환 작업 등의 오류나 지연 등으로 업로드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강 진행일로부터 2~3일 이후 인강을 수강하는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실전을 미리 경험하는 모의고사

① 모의고사, 꼭 봐야 할까?

매달 정기적으로 학원이나 온라인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에 응시해야 하는지 수험생으로서는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도 합격수기를 읽어 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모의고사에 응시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본인은 응시하지 않았다는 수험생들도 있다.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시험에 미리 응시해 봄으로써 수험생의 개인 성적 및 통계 분석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쯤 인지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습 계획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분위기를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시간 안배 및 시험 치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그러나 간혹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여 좌절하거나 또는 자만심을 가지는 수험생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의고사 점수는 단지 실전으로 가는 길의 하나의 '과정'이나 '숫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모의고사를 응시하되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는 타입이라면 최대한 감정을 컨트롤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② 모의고사 응시의 장점

- 본인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다. 합격을 위한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올바른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 나의 성적 위치를 분석할 수 있다. 나의 현재 성적 위치와 회차별 성적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 영역별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다. 과목의 영역별 분석을 통해 본인의 취약점을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집중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다.
- 시험 치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다. 시험에서 실패하는 요인은 알고 모르는 문제 못지 않게 요령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 시험장에서는 사소한 부분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시간 안배하기, 모르는 문제를 과감히 포기하기,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시험 치기 등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 실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모의고사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다. 마킹 실수 등 불합격 요소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실전에서 답안을 밀려 쓰거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못하는 등의 실수가 나지 않도록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다.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이다.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wasted time.

- 메이슨 콜리 -



3 과목별 공부 방법

1 국어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최근 7년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

자료: 2022~2016. 국가직 9급 기출문제 기준

대단원	소단원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계	비율	
문법	국어 문법	1	3	3	4	3	5	3	21	15	
	어문 규정	1	1	1		2	2	2	9	6.4	
	정서법	1	1	1		1		1	5	3.6	
	소개	3	5	5	4	6	7	6	35	25	
어휘	어휘	2					1	1	4	2.9	
	한자	2	2	3	1	2	3	2	15	10.7	
	소개	4	2	3	1	2	4	3	19	13.6	
독해	비문학	국어의 활동	2	2	2	3	3		3	16	11.4
		글의 독해	7	7	7	6	4	2	4	37	26.4
	소개		9	9	9	9	7	2	7	53	37.8
	문학	현대 문학	2	2	2	4	2	5	3	20	14.3
		고전 문학	2	2	1	2	3	2	1	13	9.3
	소개		4	4	3	6	5	7	4	33	23.6
	합계		20	20	20	20	20	20	20	140	100

○ 2022년 국가직 9급 필기시험 국어 총평

2022년 국가직 9급 국어 시험은 작년 국가직 9급과 마찬가지로 전체 난이도가 낮아 출제 경향에 비해 문법의 출제 비율이 높았고, 혼동하기 쉬운 어휘를 묻는 문제의 비중이 소폭 늘었다.

국어 문법 3문제, 어휘 및 한자 4문제, 비문학 9문제, 문학 4문제가 출제되었다.

문법 영역은 국어 문법 1문제, 어문 규정 1문제, 정서법 1문제가 출제되었다. 지시 표현을 묻는 문제와 어문 규정의 사이시옷을 묻는 문제, 올바른 단어와 문장으로 고쳐 쓰는 정서법 문제가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

어휘 영역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어휘 2문제, 한자 문제가 2문제씩 출제되었다.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휘와 한자 영역을 꾸준히 공부했던 수험생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비문학 영역의 경우 올해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존의 기출문제 형식을 벗어난 복합 지문이 많았다. 작년과 같은 비중으로 화법 2문제, 글의 전개 방식 1문제, 추론 2문제, 배열 및 전개 순서 2문제 등 총 9문제가 출제되었다. 화법 이론과 독해 방식이 결합된 문제나 추론 문제 등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어 앞으로도 신유형의 기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학 영역은 현대 문학 2문제, 고전 문학 2문제로 작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현대 문학에서는 시의 이해를 묻는 문제와 소설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각각 1문제씩, 고전 문학에서는 고전 소설의 내용을 묻는 문제와 고전 시가의 형식에 대해 묻는 문제가 각각 1문제씩 출제됐다. 네 문제 모두 평이한 수준으로 평소 교과서 필수 작품을 숙지하였거나 지문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였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② 영역별 출제 유형 분석

국어는 각 영역별로 출제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문법(국어 문법·어문 규정·정서법), 어휘(한자 포함), 비문학, 문학의 각 영역에 따라 자주 출제되는 대표 유형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문제가 출제되니 유의해야 한다.

국어 문법

■ 유형 분석

문법 영역에서는 품사 분류·형태소 분석·합성어와 파생어 구별 등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며, 간혹 시제나 존칭, 지시 표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문법은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조금 더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한다.

■ 출제 사례

다음 대화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2. 국가직 9급

- 이진: 태민아, ㉠ 이 책 읽어 봤니?
 태민: 아니, ㉡ 그 책은 아직 읽어 보지 못했어.
 이진: 그렇구나. 이 책은 작가의 문체가 독특해서 읽어 볼 만해.
 태민: 응, 꼭 읽어 볼게. 한 권 더 추천해 줄래?
 이진: 그럼 ㉢ 저 책은 어때? 한국 대중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재미있는 책이야.
 태민: 그래, ㉣ 그 책도 함께 읽어 볼게.
 이진: (두 책을 들고 계산대로 간다.) 읽어 보겠다고 하니, 생일 선물로 ㉤ 이 책 두 권 사 줄게.
 태민: 고마워. 잘 읽을게.

- ① ㉠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② ㉢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③ ㉢과 ㉣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④ ㉤은 ㉡과 ㉢ 모두를 가리킨다.

정답 ②

해설 ㉢ '저 책'의 '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이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분석 ① ㉠ '이 책'의 '이'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 '그 책'의 '그'는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 관형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 '저 책'과 ㉣ '그 책'은 모두 '한국 대중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재미있는 책'을 가리키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이진'이 앞서 나온 ㉢ '저 책'과 ㉣ '그 책' 두 권을 들고 계산대로 간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어문 규정

■ 유형 분석

어문 규정에 맞는 표현을 찾거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을 찾는 형태로, 문제 유형은 단순하다. 어문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헛갈리기 쉬운 표현은 따로 정리해서 자주 보아야 한다.

■ 출제 사례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2022. 국가직 9급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 (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① (가)에 따라 '아래+집'은 '아랫집'으로 적는다.
 ② (가)에 따라 '쇠+조각'은 '쇠조각'으로 적는다.
 ③ (나)에 따라 '전세+방'은 '전셋방'으로 적는다.
 ④ (나)에 따라 '자리+세'는 '자리세'로 적는다.

정답 ③

해설 '전세(傳貰)+방(房)'은 한자어끼리 결합된 합성어로서 '전셋방'으로 적는다. 따라서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분석 ① '아래+집'은 순우리말 '아래'와 '집'이 결합된 합성어이며, [아래집/아래집]으로 발음하므로 (가)에 따라 '아랫집'으로 적는다.

② '쇠+조각'은 순우리말 '쇠'와 '조각'이 결합된 합성어이며, [쇠조각/쇠조각/췌조각]으로 발음하므로 (가)에 따라 '쇠조각'으로 적는다.

④ '자리+세(貰)'는 순우리말 '자리'와 한자어 '세'가 결합된 합성어이며, [자리세/자리세]로 발음하므로 (나)에 따라 '자리세'로 적는다.

정서법

□ 유형 분석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의미가 모호한 문장, 높임법의 사용,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출제되었던 표현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관련 기출도 잘 챙겨야 한다.

■ 출제 사례

(가)~(라)를 고쳐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국가직 9급

- (가)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틀려.
 (나)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됐으면 좋겠어.
 (라)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 ① 가):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달라.
 ② (나):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③ (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④ (라):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정답 ②

해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의미로는 '바램'이 아닌 '바람'이 표준어이다. 따라서 ②에서 '바람'을 '바램'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으로는 '다르다'를 쓰므로 '틀려'를 '달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다): 주어인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과 서술어인 '잘됐으면 좋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다. 따라서 주어와 호응하도록 서술어를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의 형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라): '주다'는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수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시련을 주기도 한다.'에는 필수 부사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필수 부사어 '인간에게'를 추가하여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

□ 유형 분석

순우리말, 관용어, 속담, 한자어, 한자 성어 등에서 문제가 골고루 출제된다. 단순히 의미를 묻는 형태를 비롯하여, 문장에서의 쓰임을 묻거나 같은 의미로 쓰이는 한자 성어 및 속담을 연결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고 있다. 예전에 비해 한자 문제의 출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 출제 사례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2. 국가직 9급

- ① 그는 구곡간장(九曲肝腸)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다.
 ② 학문의 정도를 걷지 않고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이가 있다.
 ③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구밀복검(口蜜腹劍)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④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답 ④

해설 '당랑거철(螳螂拒轍)'은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다는 맥락에는 그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구곡간장(九曲肝腸):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곡학아세(曲學阿世): 바른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을 이르는 말

③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비문학

□ 유형 분석

과거에 비해 작문·화법·독서와 관련된 문제 비중이 늘었으나, 비문학 영역에서는 지문의 독해 영역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 정보 확인(일치·불일치), 단락 순서 배열, 글의 특징 파악, 이어질 내용 유추, 전제 찾기 등의 형태로 출제된다.

■ 출제 사례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2. 국가직 9급

정수: 지난번에 너랑 같이 들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정말 유익했어.

지민: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정수: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어.

지민: 맞아. 그중에서도 두괄식으로 답변하라는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라.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전략이 면접에서 그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정수: 어! 그래? 나는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는데.

지민: 그랬구나. 하긴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

정수: 그렇긴 해.

- ①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며 상대방의 이견을 반박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상대방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지민은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는 정수의 발화를 존중하면서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다고 덧붙이고 있다. 또한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지민’이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드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지민’이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해 이견을 반박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지민’은 상대방과 다르게 생각한 부분을 밝히고 있을 뿐,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문학

□ 유형 분석

현대 문학에서는 시와 소설의 비중이 높으며 작품 감상의 관점, 표현상 특징 등 문학 작품의 이해와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고전 문학은 현대 문학에 비해 출제율은 낮으나, 시조의 출제율이 높고 ‘한자·어휘’와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큰 비중은 아니지만 드물게 문학사나 문학 이론에 관련된 문제도 종종 출제되고 있다.

■ 출제 사례

(가)~(라)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2. 국가직 9급

(가) 간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 말가.

㉠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후물며 못다 핀 곳이야 날려 무슴 허리오.

(나) 철령 노픈 봉에 쉬어 넘느 저 구름아.

고신원루(孤臣冤淚)를 비 사마 띄여다가

㉡ 님 계신 구중심처(九重深處)에 뿌려 본들 엇드리.

(다)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호노매.

(라) 삼동(三冬)의 뵘뵘 님고 암혈(巖穴)의 눈비 마자

구름 핀 벗뵘도 핀 적이 업건마는

서산의 ㉣ 힌디다 하니 그를 설워 호노라.

① ㉠은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을 가리킨다.

② ㉡은 궁궐에 계신 임금을 가리킨다.

③ ㉢은 헤어진 연인을 가리킨다.

④ ㉣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을 가리킨다.

정답 ④

해설 ‘㉠ (가) 조식의 시조 ‘삼동(三冬)의 뵘뵘 님고 암혈(巖穴)의 눈비 마자 (임금)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읊은 시조이다. ㉡은 헤어진 연인이 아닌 이승을 떠난 임금을 뜻한다.

오답 분석 ① 유응부의 시조 ‘간밤의 부던 바람에~’는 계유정난으로 인해 푸른 절개를 가진 인재들의 죽음을 개탄한 작품이다. ㉠은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을 의미한다.

② 이항복의 시조 ‘철령 노픈 봉에~’는 귀양 도중에 자신의 무죄를 읊은 시조이다. ㉡은 궁궐에 계신 임금을 뜻한다.

③ 계량의 시조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는 임을 그리워하는 이별의 정한을 읊은 시조이다. ㉢은 헤어진 연인을 의미한다.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문법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으로 꼽히는 영역 중 하나가 문법이다. 그 이유는 문법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암기만 하기 때문이다. 문법의 각 영역인 음운론·형태론·문장론·통사론·화용론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예를 통하여 각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문 규정

옳은 것을 찾거나 그렇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대다수이므로 출제 유형이 굉장히 단순하다. 그러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필요하다. 어문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문법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 문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후에 예외 규정 위주로 암기하면 공부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어문 규정에 있는 예들은 자주 보면서 눈에 익히고, 헛갈리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양을 암기하기보다는 적은 양을 매일 꾸준히 암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서법

문법과 어문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묻는 영역으로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높임법의 사용,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등을 찾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다양한 예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문장을 유형별로 모아 두고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는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실력을 쌓는 데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어휘

어휘는 순우리말·한자어·속담·한자 성어·관용어 등 그 범위가 넓고, 시행처와 시행 연도에 따라 출제되는 어휘의 난이도도 천차만별이다. 매일 일정한 양을 정해 두고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암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시된 문장이나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하는 어휘를 찾는 문제도 있으니 글의 맥락을 통해 어휘를 유추해 내는 훈련도 필요하다.

비문학

최근에는 비문학 문제의 비중이 많이 늘음에 따라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지문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지문을 접하면서 독해력을 길러야 한다. 최근 5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풀어 보면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독해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그리고 반복해서 틀리는 유형은 따로 분류하여 그 유형만 집중적으로 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학

최근에는 단순 분석이나 암기로는 풀 수 없는, 작품 전체의 감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스스로 감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별로 분석되어 있는 주제나 특징 등을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내고 확인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실제 작품을 가지고 연습하면서, 이것을 문제에 적용하는 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한 문제 풀이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영어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최근 7년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

자료: 2022~2016. 국가직 9급 기출문제 기준

대단원	소단원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계	비율
어휘	단어	3	2	2	2	2	2	2	15	10.7
	숙어	2	2	2	2	2	2	2	14	10
	소개	5	4	4	4	4	4	4	29	20.7
문법	동사					1		1	2	1.4
	태·시제	1	1		1	1			4	2.9
	가정법						1		1	0.7
	부정사, 분사, 동명사				1				1	0.7
	명사, 형용사, 부사								0	0
	접속사, 전치사, 관계사	1	1				1	1	4	2.9
	비교 구문								0	0
	특수 구문			1					1	0.7
	영작	2	2	2	2	1	2	1	12	8.6
	소개	4	4	3	4	3	4	3	25	17.9
독해	주제·요지 찾기	1	1	2	2		1	1	8	5.7
	제목 찾기	2	1	1	1	2	1	2	10	7.1
	빈칸 내용 추론	2	2	2	2	2	3	2	15	10.7
	지칭 추론								0	0
	심경 파악		1						1	0.7
	내용 파악·일치	1	2	2	2	3	1	3	14	10
	주어진 문장 넣기	1	1	1	1	1	2	1	8	5.7
	문단 순서 정하기	1	1	1		1	1	1	6	4.3
	무관한 문장	1	1	1	1	2	1	1	8	5.7
	연결사			1	1				2	1.4
	소개	9	10	11	10	11	10	11	72	51.4
생활영어	생활영어	2	2	2	2	2	2	2	14	10
	소개	2	2	2	2	2	2	2	14	10
합계		40	20	20	20	20	20	20	140	100

○ 2022년 국가직 9급 총평

2022년 국가직 9급 영어 과목의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했으며, 지난 몇 년간의 공무원 영어 시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문항을 살펴보면, 최근 7개년 동안 진행되어 온 시험과 영역별로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출제 유형에도 크게 변동이 없다. 다만 국가직 영어는 지방직 영어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더 길고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지방직 시험보다 높았을 것이다.

어휘 영역에서는 3문제는 유의어를 찾는 유형이 출제되었으며, 1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고르는 문제였다. 어휘와 동사구 문제가 3:1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4문제 모두 빈출 어휘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출 어휘를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생활영어 문제는 두 사람이 적절한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대화를 완성하는 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으며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

문법 문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문법 영역에서는 다양한 문법 지식을 묻는 문제와 영어 표현 및 구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작형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분사구분, 비교급, 접속사, 수일치, 수동태 등 빈출 문법이 나왔다.

독해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 2022년에는 총 9문항이 출제되었다. 주제나 제목 찾기, 내용 일치, 빈칸 내용 추론, 주어진 문장 넣기, 어색한 문장 고르기의 문제가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2022년에는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제가 등장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길고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서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나, 답에 대한 근거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유형별로 풀이법을 잘 정리하고 충분히 문제를 풀어 본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정답을 도출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주제, 요지, 제목 문제들은 두괄식 글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휘, 독해, 문법, 생활영어 모두 예측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기에 최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기본 학습을 충실히 하고 페이스 유지와 시간 배분을 잘 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쉽게 풀었을 것이다.

② 영역별 출제 유형 분석

어휘 영역

□ 유형 분석

어휘 영역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으로, 지문에서 밑줄 친 단어의 유의어를 고르는 방식이다. 수준 높은 어휘들이 자주 출제되므로, 기본 어휘 실력이 있더라도 공무원 빈출 어휘나 동의어 정리를 별도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문 해석을 통해 단어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문제들도 출제되므로, 단순 어휘 암기 보다는 예문을 통해 어휘의 뜻을 유추해 보는 학습 습관도 필요하다.

■ 출제 사례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2022. 국가직 9급

Before the couple experienced parenthood, their four-bedroom house seemed unnecessarily opulent.

- ① hidden ② luxurious
③ empty ④ solid

정답 ②

해석 그 부부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들의 방 4개짜리 집은 불필요하게 호화로워 보였다.

해설 opulent는 '호화로운, 사치스러운'의 뜻으로 의미가 가장 가까운 단어는 ②luxurious (호화로운)이다.

생활영어 영역

□ 유형 분석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맥락의 빈칸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으므로, 청자와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출문제에 나온 빈출 표현을 정리하고,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어 표현을 익혀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출제 사례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22. 국가직 9급

A: I heard that the university cafeteria changed their menu.

B: Yeah, I just checked it out.

A: And they got a new caterer.

B: Yes. Sam's Catering.

A: ?

B: There are more dessert choices. Also, some sandwich choices were removed.

- ① What is your favorite dessert
- ② Do you know where their office is
- ③ Do you need my help with the menu
- ④ What's the difference from the last menu.

정답 ④

해석 A: 대학 구내식당 메뉴가 바뀌었다고 들었어.

B: 그래, 나도 방금 확인했어.

A: 그리고 새로운 음식 공급사가 들어왔다.

B: 맞아, Sam's Catering이야.

A: 기존 메뉴와 다른 점이 뭐야?

B: 디저트 선택이 더 많아졌고, 모

④ 네가 가장 좋아하는 디지털 미디어?

① 네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는 뭐야?

② 그들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③ 메뉴 고르는 데 내 도움이 필요하니?

④ 기존 메뉴와 다른 점이 뭐야?

해설 빈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디저트가 많아졌다는 것과 몇몇 샌드위치 종류가 없어졌다는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What's the difference from the last menu? 이다.

문법 영역

□ 유형 분석 1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어법상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찾는 유형이다. 최근 선택지에서 다루는 문법 요소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문법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부터 지엽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까지 두루 출제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문법 학습이 필요하다.

■ 출제 사례 1

어법상 옳은 것은? 2022. 국가직 9급

- ① A horse should be fed according to its individual needs and the nature of its work.
- ② My hat was blown off by the wind while walking down a narrow street.
- ③ She has known primarily as a political cartoonist throughout her career.
- ④ Even young children like to be complimented for a job done good.

정답 ①

해설 ① 말은 개별적 욕구나 하는 일의 특성에 따라 먹이를 줘야 한다.

- ② 좁은 길을 걷는 동안 내 모자가 바람에 날아갔다.
- ③ 그녀는 일하는 내내 주로 정치 만화가로서 알려져 왔다.
- ④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잘한 일에 대하여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해설 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동사는 수동 형태인 be fed를 적는 것이 옳다. 전치사 according to 뒤에는 명사가 와야 하고, horse를 대신하는 대명사 its의 사용 모두 어법상 적절하다.

② 접속사 while 다음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면 접속사 뒤의 주어+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주절의 주어는 my hat이고 while 다음의 주어는 걸어가는 주체인 '나'이므로 while walking의 사용은 어법상 옳지 않다. 따라서 while walking은 while I was walk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③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동사 has known을 수동 형태인 has been known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④ 과거분사 done은 부사로 수식 가능하므로 형용사 good은 부사인 well로 고쳐 써야 한다.

□ 유형 분석 2

문법 영역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 제시된 우리말을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여 영작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영작 문제는 출제 빈도가 높은 문법 요소(동사 일치, 준동사, 태, 가정법, 관계사 등)를 염두에 두면서 문장 구조 및 어휘와 숙어 실력을 묻는 문제가 많으므로 함께 학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출제 사례 2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을 고르시오. 2022. 국가직 9급

- ① 우리가 영어를 단시간에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It is by no means easy for us to learn English in a short time.
- ② 우리 인생에서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 Nothing is more precious as time in our life.
- ③ 아이들은 길을 건널 때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 Children cannot be too careful when crossing the street.
- ④ 그녀는 남들이 말하는 것을 쉽게 믿는다.
⇒ She easily believes what others say.

정답 ②

해설 ② 부정 주어와 비교급이 함께 오는 것은 최상급 대응 표현을 나타내므로 원급비교인 as 대신 than을 써야 한다.

① by no means는 never와 같은 뜻으로 부정의 강조 표현이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by no means easy'의 사용은 적절하다.

③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의 표현인 'cannot too'는 잘 쓰였고,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동일하므로 when 뒤의 주어+동사 생략 역시 어법상 적절하다.

④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사절은 say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불완전한 문장에 쓰는 접속사인 what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독해 영역

□ 유형 분석 1

지문에서 빈칸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가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빈칸 추론형 문제는 글 전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어휘력과 문장 구성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유형의 문제는 지문의 빈칸에 적합한 단어나 구 또는 문장을 삽입하여 지문을 완성하는 형태로 출제된다.

■ 출제 사례 1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22. 국가직 9급

Scientists have long known that higher air temperatures are contributing to the surface melting on Greenland's ice sheet. But a new study has found another threat that has begun attacking the ice from below: Warm ocean water moving underneath the vast glaciers is causing them to melt even more quickly. The findings were published in the journal Nature Geoscience by researchers who studied one of the many "ice tongues" of the Nioghalvfjærdsfjorden Glacier in northeast Greenland. An ice tongue is a strip of ice that floats on the water without breaking off from the ice on land. The massive one these scientists studied is nearly 50 miles long. The survey revealed an underwater current more than a mile wide where warm water from the Atlantic Ocean is able to flow directly towards the glacier, bringing large amounts of heat into contact with the ice and _____ the glacier's melting.

- ① separating ② delaying ③ preventing ④ accelerating

정답 ④

해석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빙상의 표면이 녹는 것에 높은 기온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는 아래쪽에서부터 얼음을 공격하기 시작한 또 다른 위협을 발견했다: 거대한 빙하 아래에서 이동하는 따뜻한 바닷물이 빙하를 훨씬 더 빨리 녹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들은 그린란드 북동부의 빙하 79N(Nioghalvfjærdsfjorden Glacier)의 많은 '빙설' 중에 하나를 연구한 연구자들에 의해 저널 <Nature Geoscience>에 출판되었다. 빙설은 육지의 얼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물 위를 떠다니는 얼음 조각이다.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대한 빙설은 거의 50마일 정도로 길다. 그 조사를 통해 대서양에서 나온 따뜻한 물이 빙하를 향해 직접적으로 흐를 수 있어 얼음과 접촉해 많은 양의 열기를 가져오고 빙하가 녹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폭이 1마일 더 넓은 수중 해류를 발견하였다.

- ① 분리시키는 ② 연기시키는 ③ 예방하는 ④ 가속화시키는

해설 빙하가 녹는 이유가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대서양의 따뜻한 수중 해류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로 인해 빙하가 녹는 속도를 가속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내용상 적절하므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답은 ④이다.

□ 유형 분석 2

내용 일치 및 불일치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 또한 자주 출제된다. 내용 일치에 관한 문제는 독해 지문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였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따라서 내용에 특정 부분을 근거로 하여 묻는 문제가 많으므로 지문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출제 사례 2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022. 국가직 9급

Umberto Eco was an Italian novelist, cultural critic and philosopher. He is widely known for his 1980 novel *The Name of the Rose*, a historical mystery combining semiotics in fiction with biblical analysis, medieval studies and literary theory. He later wrote other novels, including *Foucault's Pendulum* and *The Island of the Day Before*. Eco was also a translator: he translated Raymond Queneau's book *Exercices de style* into Italian. He was the founder of the Department of Media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the Republic of San Marino. He died at his Milanese home of pancreatic cancer, from which he had been suffering for two years, on the night of February 19, 2016.

- ① *The Name of the Rose* is a historical novel.
② Eco translated a book into Italian.
③ Eco founded a university department.
④ Eco died in a hospital of cancer.

정답 ④

해설 Umberto Eco는 이탈리아의 소설가이자 문화 비평가이자 철학자였다. 그는 1980년 소설 속의 기호학을 성경 분석, 중세 연구, 그리고 문학 이론과 결합하고 있는 역사 소설 <The Name of the Rose>로 널리 유명해졌다. 그는 후에 <Foucault's Pendulum>와 <The Island of the Day Before>를 포함해 다른 소설들도 썼다. Eco는 또한 번역가였다: Raymond Queneau의 책 <Exercices de style>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했다. 그는 San Marino 공화국 대학교 미디어 학부의 설립자였다. 그는 2016년 2월 19일 밤에, 2년 동안 고 통반아 온 췌장암으로 밀라노의 자택에서 사망했다.

- ① <The Name of the Rose>은 역사 소설이다.
② Eco는 이탈리아어로 책을 번역했다.
③ Eco는 대학 학부를 설립했다.
④ Eco는 암으로 병원에서 죽었다.

해설 ④ 마지막 문장에서 Eco는 췌장암으로 집에서 사망했다고 했으므로 일치하지 않는다.
① 2번째 문장에서 <The Name of the Rose>이란 소설로 유명해졌고, 그 소설이 역사 소설이라고 하였다.
② 4번째 문장에서 Raymond Queneau의 <Exercices de style>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③ 5번째 문장에서 Eco가 San Marino 공화국 대학교의 미디어 학부 설립자라고 하였다.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어휘&생활영어

어휘 문제는 동의어, 문장 내 빈칸 채우기, 독해 지문 내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넣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단순 암기식 학습보다는 예문을 통해 단어의 의미와 쓰임을 익히는 것이 좋다. 또한 필수 동의어나 파생어도 함께 정리하여 어휘의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장 속의 중요한 구문과 표현도 학습하는 것이 좋다. 생활영어 문제는 상황에 따라 관용적으로 쓰이는 관용 표현들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문법

공무원 시험에서 문법 문제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모든 언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확실히 다져 두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며, 시험에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를 확실히 알고 그에 맞는 학습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예문을 통해 실제 문장에서의 문법 활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단순히 문법 학습에만 그치지 말고 영작이나 독해와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문법 문제는 철저히 응용문제이기 때문에 기초 실력을 확실히 쌓은 후에 기출문제 위주로 많은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좋다.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독해

많은 수험생이 독해를 단순히 읽고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영어 시험은 읽고 해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즉, 독해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여 중심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다. 독해는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선별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접하여 영어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고 빨리 풀기 위해서 속독하는 훈련 역시 필요하다.

3 한국사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최근 7년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

자료: 2022~2016. 국가직 9급 기출문제 기준

대단원	소단원	2022	2021	200	2019	2018	2017	2016	계	비율
선사		1	1	1	2		2	2	9	6.3
고대	정치	2	2	3	1	4	3	2	17	11.9
	경제				1				1	0.7
	사회							1	1	0.7
	문화	2	1						3	2.1
중세	정치	1	1	1	1	1	2	1	8	6.3
	경제	1		1	1		1	1	5	3.5
	사회		1				1		2	1.4
	문화	1	1	1	1	2		2	8	6.2
근세	정치	2	2		1		1	1	7	5
	경제									
	사회						1		1	0.7
	문화			1	2	3	1	1	8	6.2
근세 대동기	정치					1			1	0.7
	경제		1		1		1	1	4	2.8
	사회			3				1	4	2.8
	문화	1							1	0.7
근세 개항기	정치	4	2	3	2	1	1	2	15	10.5
	경제		1		1	1		1	4	2.8
	사회									
	문화									
일제 강점기	정치	1	3	2		2	2	3	13	9.1
	경제				2				2	1.4
	사회			1		1			2	1.4
	문화				1		1		2	1.4
현대	정치	2	1		1	1	1	1	7	5
	경제		1	2		1			4	2.8
	사회									
	문화									
통합		2	2	1	2	2	2		11	7.6
합계		20	20	20	20	20	20	20	140	100

○ 2022년 국가직 9급 총평

2022년 국가직 9급 한국사는 평이했으며, 작년 국가직 9급보다 쉬운 편이었다. 시대사로 분석해 보자면, 전근대사에서 13문제, 근현대사에서 7문제 출제되었고, 고대와 근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분류사로 분석해 보자면, 정치에서 압도적으로 14문제가 출제되었다. 출제 유형으로는 자료 제시형 17문제, 단순 문답형 3문제였으며, 순서 나열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문제 난이도로는 10번 박지원의 한전론 문제, 16번 안동 부석사 극락전 문제가 고난도의 문제였다.

② 출제 유형 분석

□ 개념을 묻는 단순 문답형

개념과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다. 가끔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새롭게 등재되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 출제 사례 1

조선 시대의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 국가직 9급

- ① 사간원 - 교지를 작성하였다.
- ② 한성부 - 시정기를 편찬하였다.
- ③ 춘추관 -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다.
- ④ 승정원 - 국왕의 명령을 출납하였다.

정답 ④

해설 ④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 ① 사간원은 정책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간쟁 관청이었다. 교지를 작성한 관청은 예문관이다.
- ②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관청이었다. 시정기를 편찬한 관청은 춘추관이다.
- ③ 춘추관은 역사 자료를 편찬하는 관청이었다. 외교 문서를 작성한 관청은 승문원이다.

■ 출제 사례 2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국가직 9급

- ①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 ② 정림사지에는 백제의 5층 석탑이 남아 있다.
- ③ 능산리 고분군에는 계단식 돌무지무덤이 있다.
- ④ 무령왕릉에는 무덤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었다.

정답 ③

해설 ③ 계단식 돌무지무덤은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서 발견되었다.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굴식 돌방무덤이 발견되었다.

- ① 백제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 ② 정림사지에는 미륵사지 석탑을 계승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다.
- ④ 무령왕릉에서는 무덤 주인공이 무령왕과 왕비임을 알려주는 지석이 발견되었다.

□ 순서 나열형 문제

역사적 사건 순서를 정확하게 나열하는 문제 유형이다. 정확한 연도보다는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지 물어보는 유형이다.

■ 출제 사례

(가)~(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9. 국가직 9급

- (가)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다.

- ① (나) ⇨ (가) ⇨ (라) ⇨ (다)
- ② (나) ⇨ (다) ⇨ (가) ⇨ (라)
- ③ (다) ⇨ (가) ⇨ (나) ⇨ (라)
- ④ (다) ⇨ (나) ⇨ (가) ⇨ (라)

정답 ②

해설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1945. 8.) ⇨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개최(1945. 12.) ⇨ (가) 좌우 합작 7원칙 발표(1946. 10.) ⇨ (라) 남북 협상(1948. 4.)

□ 자료 제시형 문제-사료 제시형

제시된 사료를 통해 이 사료가 어느 시대인지, 어느 왕에 대한 시기인지 등을 유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다. 자료 제시형은 가장 빈출되는 유형이다.

■ 출제 사례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 국가직 9급

당 현종 개원 7년에 대조영이 죽으니, 그 나라에서 사사로이 시호를 올려 고왕(高王)이라 하였다. 아들 (가) 이/가 뒤이어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가 겁을 먹고 그를 섬겼으며, 또 연호를 인안(仁安)으로 고쳤다.

—『신당서』

- ①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겼다.
- ②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성기를 이루었다.
- ③ 장문휴를 시켜 당의 등주(산둥성)를 공격하였다.
- ④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 도읍을 정하였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사료의 (가)에 들어갈 국왕은 발해 무왕이다. ③ 발해 무왕은 장문휴로 하여금 당의 등주 지역을 공격하게 하였다.

- ①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긴 것은 발해 문왕과 발해 성왕이다. 발해 문왕은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겼고, 발해 성왕은 수도를 동경 용원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 ② 발해 선왕 때의 일이다.
- ④ 대조영(1대 고왕) 때의 일이다.

□ 자료 제시형 문제-자료 제시형

제시된 자료를 통해 문제에서 묻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다. 단순한 자료뿐만 아니라 그래프, 사진 등 다양한 자료가 제시될 수 있다.

■ 출제 사례 1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 국가직 9급

한국 국민당을 이끌던 그는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고자 한국 독립당을 결성해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다. 광복 직후 귀국한 그는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김규식과 더불어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 ①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해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 ② 광복 직후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었다.
- ③ 무장 항일 투쟁을 위해 하와이로 건너가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였다.
- ④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이 알려지자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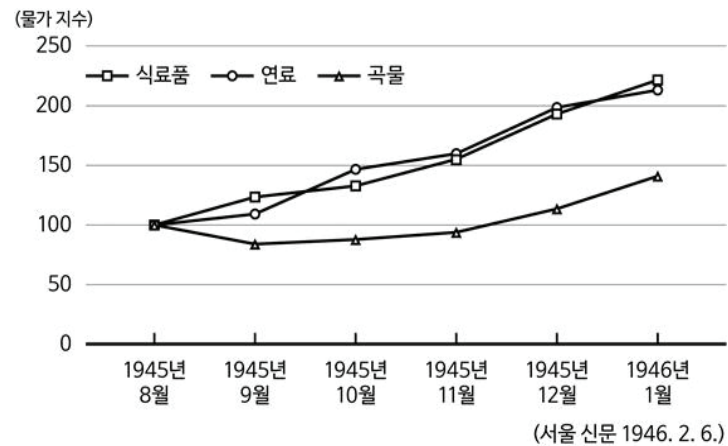
정답 ④

해설 밑줄 친 ‘그’는 김구이다. ④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내용이 알려지자 김구는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여 반탁 운동을 펼쳤다.

- ① 좌우 합작 위원회는 김규식, 여운형 등 중도파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 ② 여운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③ 박용만에 대한 설명이다.

출제 사례 2

다음 그래프에 표시된 시기에 일어난 사회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직 9급



- ① 해외로부터 귀환인이 급증하여 식량이 부족했다.
- ② 38도선 분할 점령 이후 식료품 부문의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 ③ 미군정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했다.
- ④ 미곡 수집제 폐지, 토지 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정답 ④

해설 ④ 미군정은 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946년 1월 미곡 수집령을 공포하였다. 따라서 미곡 수집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는 1946년 1월 이후에 일어날 수 있다.

① 해방과 함께 해외로부터의 귀환 동포가 계속 증가함으로써 인구가 급증하여 식량이 부족했다.

② 남한 지역은 일제 강점기 이래 농업 중심지로서 공업 기반이 약한 편이었다. 38도선 분할 점령 이후 공업 생산력은 더욱 감소하여 식료품을 포함한 생필품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③ 미군정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였다. 그 결과 통화량이 급증하여 물가 폭등을 초래하였다.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전 시대에 걸친 종합적인 이해

최근 7년간 출제 분포를 보면 한 시대에 특정되지 않고 전체 시대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며, 여러 시대를 함께 물어보거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함께 물어보는 통합 문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전 시대를 두루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근현대사 부분은 연표를 철저히 활용하여 사건 순서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주어진 자료를 분석·해석하는 능력 제고

한국사 문제는 단순한 단답형보다 자료 제시형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고 있다. 기본 개념을 정확히 세운 뒤 다양한 사료와 지도, 그래프, 화보 등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기출문제로 시험 유형 파악

공무원 한국사 시험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이 다수 변형되어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시험의 기본 자료이자 최신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매우 중요한 예상문제이다. 기본서로 이론을 익힌 뒤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공부했던 이론이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떠한 문제 유형이 자주 출제되는지, 주요 출제 주제는 무엇인지 등을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이론과 시사 분야 학습

시험 전 새롭게 제시된 이론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간도와 독도 등 영토 문제, 북한의 핵 문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새롭게 진행되거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들이 시험에 종종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늘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

4 행정학개론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최근 7년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

자료: 2022~2016. 국가직 9급 기출문제 기준

대단원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계	비율
행정학 총론	3	4	3	1	4	3	3	21	15
정책론	5	3	5	4	3	4	5	29	20.7
조직론	2	5	4	6	4	4	2	27	19.3
인사행정론	4	2	3	3	4	5	4	25	17.9
재무행정론	3	3	3	3	4	2	4	22	15.7
정보사회와 행정	1						1	2	1.4
행정환류론		1		1				2	1.4
지방행정론	2	2	2	2	1	2	1	12	8.6
계	20	20	20	20	20	20	20	140	100

※ 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대단원별 출제 경향

국가직 9급 시험은 대체로 행정학 총론과 정책론,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이 주로 출제된다. 행정학 총론에서는 행정학의 전반적인 내용(행정의 개념, 행정학의 발달과 주요이론, 가치 등)이 출제되고, 정책론에서는 정책의 유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 또한 조직론에서는 조직의 효과적인 관리 방법과 우리나라 공공조직에 관한 문제 등이 출제되고, 인사행정론에서는 공직구조의 체계와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다. 재무행정론에서는 예산과정 이론과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이 출제된다.

○ 2022 국가직 9급 총평

필수와목답게 문제들이 적절한 난이도로 변별력 있게 출제되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제대로 공부한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 간에 점수 차이가 현격하게 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행정학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었으나, 정책론과 인사행정론의 비중이 작년 대비 증가하였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전체적인 흐름과 이해를 묻는 문제들도 상당수 출제되었으나 세부적인 내용도 적지 않게 출제되었으며, 특히 법령 관련 문제가 6문제 이상 출제된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학 관련 법령 공부를 게을리하면 고득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정형화된 기출문제 유형이 대부분이었으나, ‘나카무라와 스몰우드 모형’, ‘정치적 중립성의 정당화 근거’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묻는 문제도 출제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제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주제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다소 지엽적인 주제를 다루는 문제(‘정치적 중립’, ‘정보기술 아키텍처’ 등)도 일부 등장해 난이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MBO’나 ‘행정이론’ 등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수험생들의 실수를 유도한 문제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행정학 학습에서 항상 강조되어 온 개념이므로 충분한 기본기 학습과 반복을 통해 행정학 내공을 쌓아온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출제 유형 분석

■ 참·거짓 판별 문제 유형

참·거짓 판별 문제는 행정학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 개념을 서술할 때 옳은 개념과 반대되는 내용을 서술하여 틀린 문장이 나 옳은 문장을 찾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평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대되는 표현의 다른 개념이 있는 경우에 이 또한 출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실하게 뜻을 이해하도록 한다.

■ 출제 사례

조직문화의 경쟁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지방직 9급

- ① 위계 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한다.
- ② 혁신지향 문화는 창의성을 강조한다.
- ③ 과업지향 문화는 생산성을 강조한다.
- ④ 관계지향 문화는 사기 유지를 강조한다.

정답 ①

해설 ① [X] 쾰과 로보그의 경쟁적 가치모형 중 응집성과 사기를 강조하는 모형은 관계지향 문화이다. 위계적 조직문화는 내부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요시하며, 정보관리와 조직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② [O]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성 증진, 변화, 혁신, 도전 등을 강조하는 모형은 혁신지향 문화에 기반을 둔 개방체제 모형이다.
 ③ [O] 조직의 생산성, 능률성 등을 강조하는 모형은 과업지향 문화에 기반을 둔 합리적 목표모형이다.
 ④ [O] 관계지향 조직문화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모형은 조직구성원들의 협력,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 응집력, 사기 등을 중요시한다.

■ 내용 분류 문제 유형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행정학의 이론들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 해당하는 것은?’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함께 묶어서 숙지하도록 한다.

■ 출제 사례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2. 국가직 9급

- ㄱ.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
- ㄴ. 중·장기목표를 단기목표보다 강조한다.
- ㄷ.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
- ㄹ.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 ① ㄱ, ㄴ
- ③ ㄴ, ㄹ

- ② ㄱ, ㄷ
- ④ ㄷ, ㄹ

정답 ②

해설 ㄱ. [O] 목표관리제는 참여적 관리로 상하 조직 구성원의 참여 과정을 통해 조직의 공동 목표를 명확히 하는데, 목표 설정에 있어 부하와 상사가 합의하에 결정한다. 사후에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환류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태적·민주적 관리체제이다.
 ㄴ. [X] 목표관리제는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한 단기적(수개월~1년 이내)·가시적 목표설정을 강조한다.
 ㄷ. [O] 목표관리제는 폐쇄적 내부관리모형이므로 환경이 유동적인 경우 명백한 목표 설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나 복잡한 환경보다는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
 ㄹ. [X] 목표관리제는 결과 지향적 관리로, 목표의 현실적·정량적·단기적·객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 개념 확인 문제 유형

개념 확인 문제 유형은 설명에 부합하는 개념을 찾거나, 특정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옳은 서술을 찾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대부분 문제에서 많은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문제를 읽는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출제 사례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2022. 국가직 9급

정부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정치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 | | |
|---------|----------|
| ① 대중정치 | ② 고객정치 |
| ③ 기업가정치 | ④ 이익집단정치 |

정답 ②

해설 ② [O] 고객정치는 정부규제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침묵적 다수)에게 부담되나, 그 편익은 대단히 크며, 동질적인 소수(활동적 소수)에게 귀속되는 상황이다. 다수의 비용부담자 집단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며, 조직화된 소수의 수혜자 집단에서는 규제의 유지를 위해 정치적 압력(지대추구와 포획)을 행사한다.

■ 순서 연결 문제 유형

순서 연결 문제는 보통 이론의 발달 순서나 실현 과정, 수립 절차 등을 묻는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으므로 한 번만 순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로 구성된 부분은 눈여겨보도록 하고, 과정들에는 논리적 연계성이 있으므로 전후 관계 파악을 확실하게 하도록 한다.

■ 출제 사례

(가) ~ (라)의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22. 국가직 9급

- (가)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나)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활동으로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라) 왈도(Waldo)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 | | |
|-------------------------|-------------------------|
| ① (다) ⇨ (가) ⇨ (나) ⇨ (라) | ② (라) ⇨ (가) ⇨ (나) ⇨ (다) |
| ③ (라) ⇨ (나) ⇨ (가) ⇨ (다) | ④ (라) ⇨ (나) ⇨ (다) ⇨ (가) |

정답 ②

해설 ② [O] (가)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이다. 뉴거버넌스론은 기존의 거버넌스론과 달리 1980년대 이후 계층제와 시장,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정부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나) 오스트롬(V. Ostrom)의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이다. 오스트롬은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1973)」를 통해 인간을 이기적·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에서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시민의 선택을 중시하는 공공선택론을 행정학에 접목하고자 하였다.
 (다) 공공관리론(정치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굿노(F. J. Goodnow)는 「정치와 행정(1900)」을 발표하면서 '정치는 국가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국가의사를 실행·실천하는 관리 활동'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라) 신행정론(1960년대 말)에 대한 설명이다. 신행정론은 1960년대 미국 내 사회문제들을 당시 행태주의가 해결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이론이다. 특히 왈도(Waldo)를 중심으로 한 소장학자들이 참여한 미노부르크 회의에서는 문제 지향적·처방적·실천적 행정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 가치·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 제도 및 이론 비교 문제 유형

행정학의 많은 이론과 제도들은 기존의 것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공통점·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로 대비되는 개념들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출제 사례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 국가직 9급

- ①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가치는 신뢰(trust)이다.
- ④ 뉴거버넌스의 관리기구인 시장은 시장(market)이다.

정답 ①

해설 ①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기존의 행정국가체제와는 달리 노점기보다는 방향잡기를 강조한다.
 ② [×]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인 데 비해, 뉴거버넌스의 인식론적 기초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이다.
 ③ [×]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가치는 결과(outcomes)이며, 뉴거버넌스가 중시하는 관리가치는 신뢰이다.
 ④ [×] 신공공관리의 관리기구인 시장은 시장이며, 뉴거버넌스의 관리기구인 신뢰, 협력을 기반으로한 연계망(network)이다.

□ 법령 문제 유형

행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에서는 법령 문제가 자주 출제되며 특히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더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일단, 기존에 출제되었던 법령들은 모두 숙지하도록 하며 새로 개정된 법령들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로바로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한다.

■ 출제 사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국가직 9급

- 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 ②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①

해설 ① [X] 특정평가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여러 부처에 걸쳐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X)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O]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기구이다.

동법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O]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동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O] 자체평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행정학은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보다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론 전체를 공부하려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즉, 쓸데없는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공부 범위를 잘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행정학은 대부분의 경우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반복되어 출제되지 않고, 새로운 문제들로 바뀌어 출제가 되고 있다. 행정학이 공무원 9급 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서를 통해 꾸준히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학습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기출 주제 중심으로 공부하되, 최근 5년간 출제된 주제에 대해서는 심화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등 새롭게 개정된 법령의 경우는 그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암기해야 한다.

5 행정법총론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최근 7년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

자료: 2022~2016, 국가직 9급 기출문제 기준

대단원	소단원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합계	비율(%)
행정법총론	행정									
	행정법	2	2	2	2	2	3		13	9.3
	행정상 법률관계	1					1	1	3	2.1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1	1		1	4	2.9
	소계	3	2	3	3	3	4	2	20	14.3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2	2	1	1	2	1		9	5.7
	행정행위	4	3	4	3	3	3	5	25	17.8
	비권력적 행정작용	1	1		1	1	2	1	7	5
	행정계획		2	1					4	2.9
	행정절차	1		1	1	1	1	1	6	4.3
	정보공개와 개인 정보보호	1	2	1	1	1	1	1	8	5.7
	소계	9	10	8	7	8	8	8	58	41.4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집행		2	2	2	2	2	1	11	10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1	1			1		1	4	2.1
	행정벌	1		1	1		1	1	5	2.9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							1	
	소계	3	3	3	3	3	3	3	21	15
	행정상 손해배상	1	1	1	1	1	1	1	7	5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						1		1	0.7
	행정심판	1	1	1	1	1		1	6	4.3
	행정소송	3	3	4	5	4	3	5	27	19.3
	소계	5	5	6	7	6	5	7	41	29.3
	합계	20	20	20	20	20	20	20	140	100

○ 2022년 국가직 9급 총평

2022 국가직 행정법총론 시험은 전체적으로 상(上) 난이도에 해당한다. 5문제나 출제된 사례형 문제가 매우 높은 난도였다. 18문제가 판례 문제로 출제되었으며 약 2문제가 조문과 이론에 관한 문제였다. 기출은 어려운 변형 문제로 출제되어 최근 치러진 행정법 시험 중에 가장 까다로운 난이도였다고 할 수 있겠다.

분야별 출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법통론 부분에서는 행정법이 2문제, 행정상 법률관계가 1문제로 총 3문제가 출제되었다.

행정작용법 부분에서는 행정행위에서 4문제, 행정입법에서 2문제, 비권력적 행정작용에서 1문제, 행정절차에서 1문제,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 1문제가 출제되어 행정작용법 단위에서만 총 9문제로 여느 때처럼 높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였다.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서는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에서 1문제, 행정벌에서 1문제,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서 1문제로 작년보다는 분야별로 더 고르게 출제되었으며 총 3문제가 출제되었다.

행정구제법에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에서 1문제, 행정심판에서 1문제, 행정소송에서 3문제가 출제되어 작년과 동일한 비율로 총 5문제가 출제되었다.

2022년도 국가직 시험에서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 단위에서 높은 출제율을 보였다.

② 출제 유형 분석

■ 간단한 이론 개념 묻기 유형

문제와 지문이 짧은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최근 출제 경향은 지문 길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단답식 문제의 비중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무원 시험이 타 직렬 기출도 참고하는 만큼 최근 타 직렬에 출제된 이런 기본 유형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하도록 하자.

■ 출제 사례

다음 중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형식)에 가장 포함되지 않는 것은?

2022. 해경 승진

- | | |
|----------|--------|
| ① 행정입법 | ② 행정소송 |
| ③ 공법상 계약 | ④ 행정계획 |

정답 ②

해설 ②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형식)에는 행정입법,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확약 등이 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 침해 구제에 대한 내용이다.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이 있다.

■ 법조문의 내용 확인 문제 유형

법 과목의 특성상 법조문의 내용 확인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기본 이론의 내용이 법조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 이론의 명확한 숙지 및 최신 법조문을 곁에 두고 읽어 나가는 습관이 중요하다.

■ 출제 사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 ①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③

해설 ③ 이 사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5년 임기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용된 원고를 직권면직한 처분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의무를 과하거나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이 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대판 2013.1.16, 2011두30687). 따라서 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박스형 문제

최근에는 박스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긴 지문들을 박스처리 해 놓고 그 지문에 대한 옳고 그름을 찾는 것이 주요 문제 유형이다. 박스형 문제는 지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출제 사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지방직 9급

- ㄱ.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이다.
- ㄴ.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 ㄷ. 국가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이 적용된다.
- 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②

해설 ② 옳은 지문은 ㄱ, ㄹ이다.

【×】ㄴ.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6.25, 2008두13132).

ㄷ. 국가가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87.4.14, 86누459).

□ 판례 확인 문제

법과목의 특성상 판례를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행정법 시험에서는 법조문 확인 문제와 함께 판례가 옳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판례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 출제 사례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 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수소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수소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
- ④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

정답 ③

해설 ③ 농지법 제62조 제6항, 제7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불복절차를 허용할 수는 없다. 설령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재결이 아닌 기각재결을 하면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9.4.11, 2018두42955).

□ 사례형 문제

최근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 먼저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에 대한 정답의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이다. 평소 반복적으로 중요 판례를 읽는 습관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출제 사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건축주 甲은 토지소유자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乙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甲은 건축허가를 포기·철회하기로 甲과 乙이 약정하였다. 乙은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 ① 착공에 앞서 甲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乙은 A시장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 ③ 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 ④ 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2017.3.15, 2014두41190).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출제 경향과 출제 유형을 분석해 보았으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법의 점수를 고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보도록 하자.

기본 개념

행정법에서는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입문하는 과정에서 법학용어가 생소하여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주요 법률 용어들과 기본적인 개념들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기본서를 여러 번 회독하는 과정을 통해 입문과정을 극복할 수 있다. 기본개념을 탄탄하게 쌓아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일이 될 것이다.

최신 법조문 및 판례

법과목이라는 특성상 법조문과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행정법은 이론 내용에 해당하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례를 통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공부하여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법조문은 개정이 자주 되기 때문에 항상 인터넷으로 개정된 최신 법조문을 확인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 행정법 시험은 최신 판례를 상당히 비중 있게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새로운 판례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 만큼 경험 많은 강사가 선별하는 최신 판례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으며, 학원에서 열리는 판례 특강과 같은 수업을 활용하는 것도 혼자서 판례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행정법의 출제 유형을 살펴보면 박스형 문제, 사례형 문제, 법조문 확인 문제, 판례 확인 문제 등 여러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출문제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법은 기출문제가 가장 정직하게 출제되는 과목이라 기출문제를 섭렵하면 대부분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시험 출제가 기출문제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 이론을 공부한 후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익히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전체적인 행정법의 틀 잡기 및 반복 학습

행정법은 내용적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론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입문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아준 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장기적인 면에서 행정법을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

행정법은 전공과목으로 짧은 시간에 정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2순환, 3순환 반복하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야 합격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다. 우선 기본서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회독 수를 충분히 늘린 후에 기본 이론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다면 기출문제를 같이 풀면서, 틀린 문제나 헛갈렸던 문제들을 위주로 반복하는 전략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다양한 예상문제 및 모의고사로 실전능력을 기른다면 행정법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알짜배기 그룹 스터디 전략

혼자 공부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공부 페이스도 잃기 쉽다. 합격생들의 합격수기를 읽어 보면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스터디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룹 스터디에 대해 알아보고 똑똑하게 활용해보자.

① 생활 스터디

공부 패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침 출석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 출석을 했는지 확인하고 지각자가 있을 시에는 벌금 등을 걷는다. 점심때는 함께 점심 식사 후 오후 공부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 체크한다. 만약 아침 출석이나 점심 출석 때 모두 결석하면 가중해서 벌금을 걷고 모은 돈으로 공통의 학습 자료(프린트물, 제본)를 구입하는 데에 쓰거나 간식 등을 사서 함께 나누어 먹는 용도로 사용한다.

② 문제풀이 스터디

주1~2회 정도 일정 시간에 모여 2시간 정도 문제풀이 스터디를 진행한다. 문제풀이 스터디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학원 게시판 이용, 학교 게시판 이용, 온라인 카페 이용 등의 방법이 있다. 스터디원은 서로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구성하기보다는 서로 약간 어렵고 성실한 타입의 수험생 몇 명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 좋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다 보면 간혹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과목을 정해서 번갈아가며 문제를 만들어 오고 출제자와 비출제자 모두 함께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푼다. 채점 후 오답을 체크하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여 해결한다.

③ 기본서 회독 점검 스터디

2~3명의 수험생(기본서를 같은 것으로 보는 수험생끼리 모이는 것이 좋다)이 해당 일자에 읽어야 할 기본서 분량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각자 자습 후 일정 시간에 모여 기본서를 꼼꼼히 정독하고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스터디이다. 예를 들어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이 30페이지라면 해당 페이지를 읽고 서로 모여서 한 사람은 책을 덮고 한 사람은 책을 보면서 해당 범위에서 짧은 문제를 내 본다.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잘 읽고 학습했다면 어느 정도 맞힐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스스로 해당 분량을 다 읽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벌금을 걷고, 문제를 냈는데 5문제 이상 틀리는 경우에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벌금을 걷는다. 향후 벌금을 모아 기본서 1회독, 2회독, 3회독이 끝나는 날 책거리 형식으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서 먹으며 이번 회독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얘기한다.

④ 밥터디

점심, 저녁 등 식사시간에만 짧게 30분 정도 만나 식사를 함께하면서 그날 그날 공부한 내용 중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거나 자신이 만든 암기법 중 참신하고 알려주고 싶은 것 등을 공유하면서 혼자 식사하는 외로움을 덜기 위한 스터디 + 밥(식사) 형식의 모임이다. 혼자 식사를 하기 힘들어하거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 타입의 수험생은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다. 또 그날그날 학습한 부분을 피드백할 수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막고 서로 질문과 답변 등을 통하여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⑤ 단어 시험 스터디

매일 또는 주 1~2회 정도 만나 영어 단어나 한자어(한자성어 포함) 등 주로 암기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시험을 보고 채점한다. 사전에 하루 공부할 분량을 영어 단어장 Day1 혹은 영어 단어 50개 / 한자어 50개 등으로 정하고 시험일에 서로 돌아가면서 문제를 출제해 온다. 수기로 적은 문제를 복사해도 좋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편한 사람은 프린트를 해와도 된다. 제한 시간 20분 등 시험 시간을 짧게 정해 놓고 단어를 잘 외웠는지 테스트한 후 그날 단어 시험에서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이 스터디원에게 시원한 음료수 혹은 커피를 사주는 것으로 벌칙을 정해도 좋다. 모여서 시험을 치르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까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스터디에 있어 시간은 금이다!

4 공부 계획 세우기

1 공부 계획, 왜 필요한가?

① 수험 생활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공부 습관

1년 정도의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가장 빨리 공부 습관을 잡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서 이미 수험 생활 패턴과 공부 습관이 몸에 익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던 대로 꾸준히 공부하면 된다. 그러한 독자들은 이미 절반 이상은 성취를 거둔 상태라 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독자가 있다면 일단 책을 읽으면서 2시간 정도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습관부터 몸에 익혀야 한다. 이러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공부 계획 세우기’와 ‘공부 일기 쓰기’이다.

② 공부 계획 세우기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첫 번째는 내가 목표로 하는 시험일로부터 현재까지 얼마의 기간이 남아 있느냐는 것이다. 그 기간 내에 합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가령 시험일로부터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큰 틀에서 연간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1년의 큰 테두리에서 목표를 정하고 월간, 주간, 일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간 계획표를 작성할 때에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보다는 비교적 세분화하여 자신의 학습 역량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영어가 부족한 수험생이라면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영어 성적을 합격권 내(85점 이상)로 끌어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월간, 주간, 일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간(시험일로부터 현재까지 역산한 기간)과 자신의 현재 학습 수준(과목별 성취 수준)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월간 계획표를 작성할 때에는 한 달간을 기준으로 주요 스케줄(실강·인강 개강일, 모의고사, 스터디 일정)을 적고 그 외에 공부 가능한 날짜를 파악해야 한다. 월간 목표를 설정해서 해당 월에 중점적으로 완성이 해야 하는 목표를 적어 둔다. 그런 다음에는 월간 계획표를 바탕으로 주간 계획표를 작성하면 된다. 주간 계획은 구체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1주를 단위로 중점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공부 습관 형성을 위한 일간 계획표를 작성하자. 하루의 계획은 크게 아침 공부, 오후 공부, 저녁 공부 정도로 나누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침에 일어난 이후 대략적인 공부 시작 시간을 설정해 두고 꼭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타임 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시험 막바지로 접어들게 되면 공부 분량을 집중적으로 늘려야 하므로 새벽이나 취침 전 등 자투리 공부 시간을 설정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③ 공부 일기를 쓰자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 습관, 패턴을 만들려고 크게 마음먹지만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행동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행동을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물이 끓는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0℃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일정한 열이 가해져야 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부 시간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좋은 공부 습관을 들여야만 스스로 공부하는 타입의 수험생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의지력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부 일기 쓰기를 추천한다. 하루 동안 자신이 공부한 시간과 과목, 공부한 단원명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8/20 오전 8:50~ 10:00 / 영어 / 완전자동사와 불완전자동사 / 문법 요점 정리, 확인 문제 풀이 7문제, 이러한 형식으로 자신이 진짜 집중해서 공부한 순수 시간만을 1일 기준으로 적어 내려간다. 이것이 습관처럼 굳어지게 되면 자신이 하루 얼마 정도의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지, 무슨 공부를 주로 하고 취약한 과목은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합격 플래너 꼼꼼 활용법

1 합격의 큰 그림을 그려라(연간 계획표 작성하기)

1년 단위의 연간 계획표를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내가 목표로 한 시험까지 얼마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보통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 해에 2번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시험이 그것이다. 이런 중요한 일정들은 연간 계획표에 표시하는 것이 좋다. 면접 준비, 면접 시험 일자 등도 꼼꼼히 체크해 두면 도움이 된다. 다음은 자기가 목표로 한 시험까지 수험 기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 계산해서 큰 틀에서 기간 분배를 해야 한다. 가령 2개월 정도는 기본서 1회독과 기본 이론을 정리하겠다는지 기본 이론 중에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선정하겠다는지 목표를 정한다. 그 뒤에 4개월 정도는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심화 이론을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회독 수를 늘려 나가겠다고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 Yearly PLAN

월	주요 일정
1	·심화이론 정리/집중 정리(5과목) ·3개월 집중 자기 주도 학습
2	·실전 문제 풀이(5과목) ·합격예측 모의고사
3	·실전 문제 풀이(5과목) ·합격예측 모의고사
4	*국가직 9급 필기시험 ·막판 총정리! ·면접 준비
5	·막판 총정리! ·전범위 모의고사 풀이 or 파이널 시리즈로 정리
6	·막판 총정리! ·전범위 모의고사 풀이 or 파이널 시리즈로 정리 *지방직 9급 필기시험/서울시 9급 필기시험
7	면접 스테디, 특강 등
8	·기본이론 정리, 기본서 1회독 ·종합반 2개월 집중 코스
9	·기본이론 정리, 기본서 1회독 ·종합반 2개월 집중 코스
10	·심화이론 정리/집중 정리 ·집중적인 자기 주도 학습!
11	·심화이론 정리/집중 정리 ·취약 과목 집중 정리!
12	·취약 과목 집중 정리! ·회독 수 늘리기!

1 연간 계획표 작성하기

2 과목별 학습 계획을 잡아라(과목별 플랜 작성하기)

과목별 필수교재는 기본서 1권과 기출문제집 1권이 적당하다. 필요에 따라서 모의고사 등 실전테스트용 문제집을 한 권 정도 더 구비해도 좋다. 과목별로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2개월 동안 기본서를 1회독하기로 했다면 총 기본서 페이지를 공부 일수로 나누어서 하루에 볼 분량을 대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출문제를 병행하면서 기본 개념을 익힌 뒤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하고 자신이 부족한 개념, 이론, 내용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 시험은 '시험'을 위한 공부이지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실제 출제 유형에 적합한 공부를 해야 한다. 학습 목표는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본서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하기, 최근 5개년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오답 체크하기, 모의고사 점수 80점 달성하기 등 수치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학습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된다.

● 과목별 PLAN

과목	교재	학습계획	목표
국어	국어 기본서 1권	·기본서 하루 25p씩 읽기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
	기출문제집 1권	·주1회 기출문제 점검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완전 정복
			·모의고사 점수 80점 달성
영어	영어 기본서 1권	·기본서 하루 42p씩 읽기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
	기출문제집 1권	·주2회 기출문제 점검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완전 정복
	영단어 Zip	·영단어 하루 40개씩 암기	·모의고사 점수 70점 달성
한국사	한국사 기본서 1권	·기본서 하루 23p씩 읽기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
	기출문제집 1권	·주2회 기출문제 점검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완전 정복
			·모의고사 점수 80점 달성
행정학	행정학 기본서 1권	·기본서 하루 27p씩 읽기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
	기출문제집 1권	·주1회 기출문제 점검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완전 정복
			·모의고사 점수 80점 달성
행정법	행정법 기본서 1권	·기본서 하루 23p씩 읽기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
	기출문제집 1권	·주1회 기출문제 점검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완전 정복
			·모의고사 점수 80점 달성

③ 과목별 목표 설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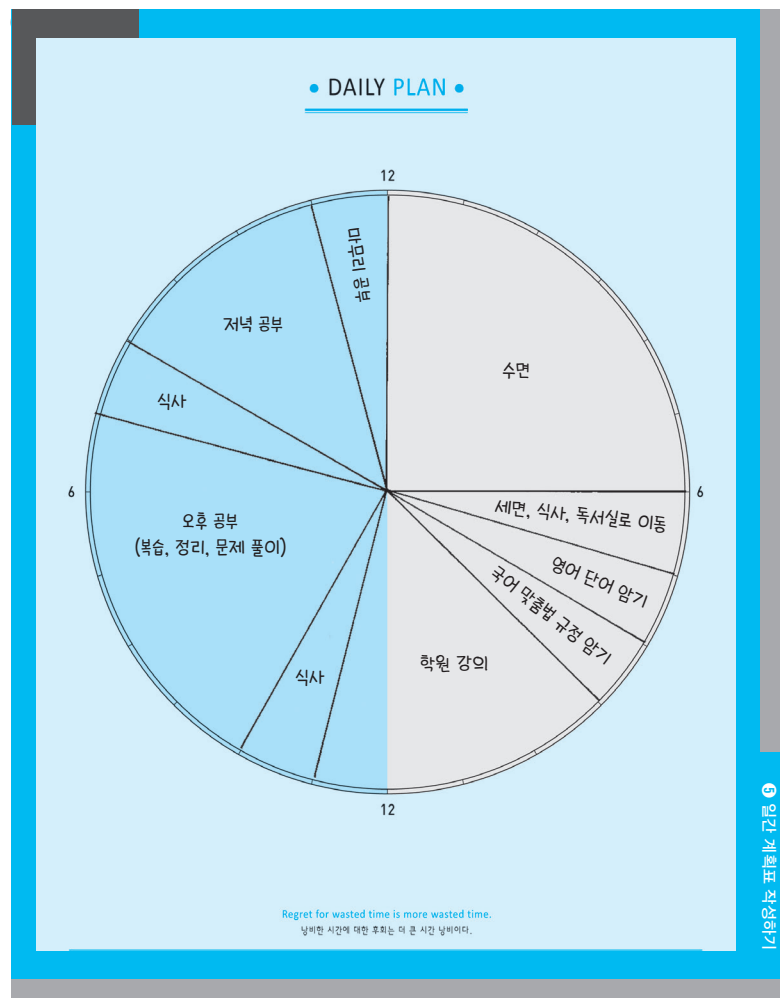
③ 월간 학습 계획을 세워라(월간 계획표 작성하기)

월간 계획표에는 주요 일정을 체크한다. 예를 들어 기본 강의 수강 시작일, 모의고사 응시일, 스터디 일정 등 수험 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번 달 완성할 과목을 정한다거나 이번 달에 성취할 목표를 기록한다. 영어 문법 8일 완성, 영어 어휘 26일 완성, 독해 5일 완성 등 월간 주요 목표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달 계획을 잡으면 중점적으로 그 달에 성취해야 할 목표가 분명히 보일 것이다.

● MONTHLY PLAN

Check the month	Monday 월	Tuesday 화	Wednesday 수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Monthly Point	4 어휘 (~ Day 6) 영어문법 (2챕터)	5 어휘 (~ Day 8) 영어문법 (2챕터)	6 어휘 (~ Day 10) 영어문법 (2챕터)
· 영어 문법 8일 완성! · 영어 어휘 25일 완성! · 독해 5일 완성	11 어휘 (~ Day 18) 독해 (2챕터)	12 어휘 (~ Day 20) 독해 (2챕터)	13 어휘 (~ Day 22) 독해 (2챕터)
· 이디엄·생활영어 4일 완성 ⇒ 영어 기본서 회독 완성!!	18 어휘 (~ Day 30) 이디엄·생활영어 (1챕터)	19 어휘 (~ Day 32) 이디엄·생활영어 (1챕터)	20 어휘 (~ Day 34) 이디엄·생활영어 (1챕터)
	25 어휘 (~ Day 46)	26 어휘 (~ Day 50)	27 어휘 (~ Day 54)

③ 월간 계획표 작성하기



힘이 드는가?
하지만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 카를레스 푸올 -

주간 계획표의 가장 큰 장점은 계획했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일별로 체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목표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적고 해당 일자별로 목표를 명확하게 기록한다.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실제로 실천했는지 여부를 해당 일자별로 기록하는데, 잘했으면 브이표(V)로, 목표치보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세모표(△)로, 아예 실천하지 못했으면 엑스표(X)로 기록한다. 계획했던 것과 실제로 한 일 사이를 자세히 보면 설정한 계획에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공부 패턴을 잃은 것인지, 나태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실제로 내가 한 일

☒ 영어 어휘 1일 Day 2씩 암기	☒
☒ 영어 문법 2챕터씩 공부(기본서)	☒
☒ 기출문제 단원별로 점검하고 오답노트 작성하기	☒
☐	☐

MON (월) // 4

영어 어휘 암기(~Day 6)	☒
영어 문법 2챕터씩 공부(기본서)	☒
기출문제 풀고 오답노트 작성	☒
	☐

TUE (화) // 5

영어 어휘 암기(~Day 8)	☒
영어 문법 2챕터씩 공부(기본서)	☒
기출문제 풀고 오답노트 작성	☒
	☐

WED (수) // 6

영어 어휘 암기(~Day 10)	☒
영어 문법 2챕터씩 공부(기본서)	☒
기출문제 풀고 오답노트 작성	☒
	☐

주간 계획표 간주

⑤ 일일 계획표를 만들어라(일간 계획표 작성하기)

일일 계획표는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세부적이고 단기적인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 수단이다. 수험생의 하루 생활은 최대한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식사, 수면, 개인위생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공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험생들 중에는 학원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수강 시간은 3~4시간 정도로 책정하고 이를 제외한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오전, 오후, 저녁 세 타임으로 나눠서 한 타임마다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오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영어 단어 암기나 국어 맞춤법 규정 암기 등을 정해 놓고 매일 학습하는 것이 좋으며, 오후 공부 시간에는 학원 강의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내용을 복습하고 혼자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다. 오후에는 공부량이 많은 시간대이므로 최소 4시간 이상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선택 과목이나 취약 과목 등을 돌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시간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자세히 보기 합격 플래너 똑똑하게 사용하기

▣ 공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자.

예를 들어 한국사 기본서를 읽고 내용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 플래너에 '한국사 기본서 읽기'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 기본서 20~51p까지 읽고 중요 내용 정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오늘 자신이 목표로 했던 학습 계획을 제대로 실천했는지 알 수 있고 또한 피드백도 용이하다.

▣ 시간 계획을 너무 촘촘히 짜지 말자.

처음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할 때에는 원대한 포부와 의욕으로 빈틈없이 플래너를 작성하는 수험생들이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제대로 지키기도 힘들뿐더러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뿐만 아니라 공부에 있어서 자신감을 상실하기 쉽다. 소소한 계획이라도 실천하고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학습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다만 시험이 1~2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에는 평소보다 학습 분량을 강도 높게 설정해야 하므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5 합격을 부르는 노트 정리법

1 왜, 노트 정리인가?

합격수기를 읽다 보면 한국사와 같은 과목에서 자신만의 연도별 발생 사건 노트를 정리했다는 수험생이나 수학 문제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시험 1주일 전에는 오답노트와 핵심 정리만 반복적으로 보았다는 글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노트가 자신의 합격을 가능하게 해 준 원동력이 되었다는 글귀가 참 인상적이다. 그렇다면 노트 정리는 왜 해야 할까?

노트 정리는 그날 배운 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 정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해주고 노트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것은, 학습내용을 잘 분류된 서랍 칸에 정리하듯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정리와 반복, 장기 기억으로의 전이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진짜 자기 것으로 소화하게 해 주는 것이다.

간혹 수험생 중에는 기본서를 열심히 읽고도 무엇을 공부했는지 당장 설명할 수 없거나 타인에게 자기가 공부한 내용의 일부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수험생들도 있다. 이것은 공부한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작정 책상 앞에 앉아 오랜 시간을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부에도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험생에 따라서는 노트 정리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필기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노트 정리는 잘 정돈된, 예쁜 글씨체의, 누군가에게 보여 주기 위한 노트가 아니다.

강의 시간에 강사가 말한 부분을 복기시켜 줄 수 있는 노트, 핵심어를 보면 내용이 떠오르는 노트, 나만이 활용할 수 있는 '진짜 노트'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합격의 길로 다가가는 효과 만점 노트 정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 노트 필기 준비물

① 노트

유선 노트, 무선 노트, 2분할 노트, 오답노트, 3공 노트, 5공 철제 링 바인더 노트 등

□ 쓰는 목적, 과목에 따라 적절한 노트를 선택하라.

한국사, 사회, 행정학 등은 필기 내용이 많으므로 두꺼운 스프링 노트를 쓰는 것이 좋다. 중간중간 필기 내용을 끼워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지면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쓰기에는 3공 노트나 5공 철제 링 바인더 노트가 좋다. 이때 반드시 수업 일자, 과목, 단원명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취합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

수학이나 과학 노트는 2분할 노트가 적당하다. 개념, 예제를 나눠 쓸 수도 있고 문제, 풀이 과정 등을 분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는 오답노트 전용으로 나온 노트도 있으니 그것을 선택해도 된다.

② 필기구

검정색 펜, 파란색 펜, 빨간색 펜, 형광펜, 컴퓨터용 사인펜 등

□ 기본색은 세 가지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노트 필기를 잘하는 학생들을 공통적으로 관찰해 보면 기본적으로 3색(검정, 빨강, 파랑)을 잘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정색은 기본적인 내용이나 일반적인 것을 적을 때 사용하고, 파랑색은 추가 내용이 나 참고·부연 설명 등을 적을 때 사용한다. 빨간색은 중요 내용, 핵심, 시험에 꼭 나온다고 강의 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정리할 때 사용한다.

③ 기타

포스트잇, 플래그, 자, 수정테이프, 지우개 등

□ 기본서 단권화를 하고자 한다면 포스트잇이 필수!

기본서에 자신만의 필기를 첨가하여 단권화하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포스트잇 활용이 효과적이다. 강의 시간 중에 설명한 보충 개념이나 심화 설명을 따로 적어 해당 단원이나 내용 옆에 붙여 두고 보다가 완전히 숙지가 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떼어내도록 한다. 포스트잇은 용도에 따라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 정도 크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실전 노트 정리법

① 노트 정리의 표준~코넬 노트 정리법

노트 정리법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것이 코넬 대학교에서 고안한 코넬 노트 정리법이다.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학 노트 형태로, 왼쪽에 여백을 두고 수직의 구분선이 그어져 있다.

○ 코넬 노트 보기

제목	날짜, 단원, 공부시간을 기록
Clue(단서) → 핵심어를 적는 칸	Notes(내용정리) → 핵심어의 세부 내용을 적는 칸
Summary → 핵심만 정리하여 3~4줄로 요약 (요약)	

□ 제목 영역

학습 날짜, 단원명, 학습 목표, 공부 시간 등을 기록한다.

□ 내용 정리 영역

강의 시간에 강사가 설명한 내용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한다. 여백은 충분히 두고, 번호 붙이기와 들여쓰기로 개념을 체계화한다. 판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지 말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재구성한다. 나만의 기호 사용, 중요한 내용이나 강조점 등은 색펜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준다.

+ 자세히 보기 나만의 기호 예

=(같다), ≠(같지 않다), &(그리고), ∴(그러므로), ∵(왜냐하면), vs.(~대), cf.(비교), def(정의), ↑(상승, 증가) 등

□ 단서 영역

필기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를 선택한다. 내용정리 영역을 가리고 핵심 단어를 보면서 스스로 필기 내용을 설명해 보는 것도 좋다.

+ 자세히 보기 핵심어 뽑는 요령

1. 수업 시간에 처음 제시되거나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
2. 추가적인 설명을 많이 해주거나 부연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것
3. 선생님이 강조하자면, 요약하면, 핵심은~, 결론적으로~ 등 특히 강조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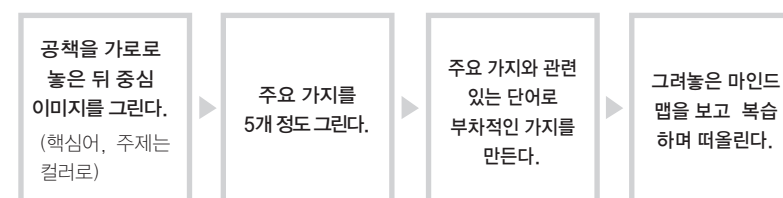
□ 요약 영역

필기 내용을 3~4줄로 요약해서 적는다. 일종의 핵심 정리인 것이다. 기억의 장기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습이듯 노트 정리의 가장 중요한 점도 반복이다. 반복하여 노트 정리로 복습하면서 노트 필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자료만으로 필기하지 말고 문제집, 요약집 등 여러 자료를 다양하게 취합하여 노트를 보완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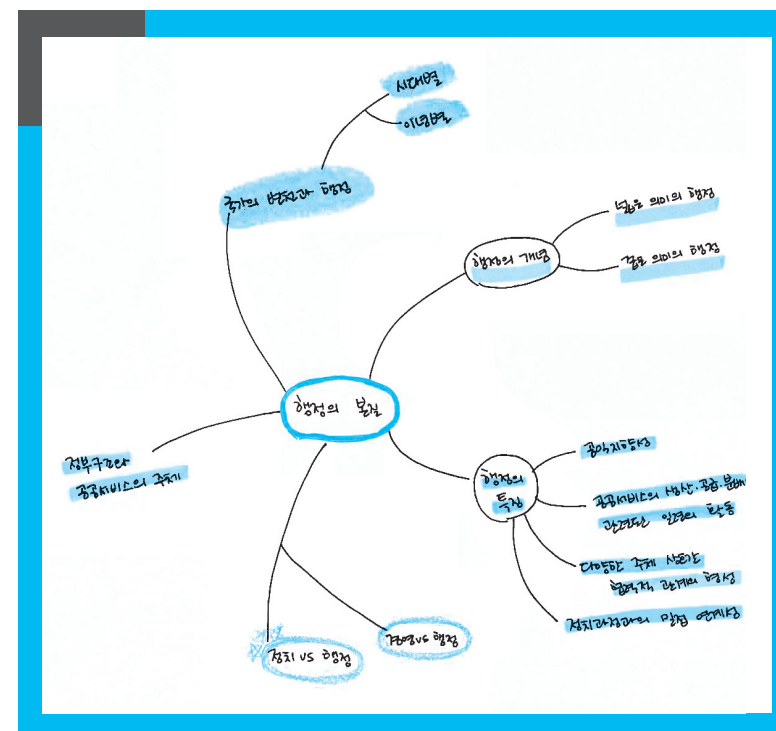
② 뇌를 깨우는 마인드맵

하나의 주제어(핵심어)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여러 개의 선을 그려 입체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트 필기법이다. 핵심어를 시각적으로 강조할 수 있고 시각적 인지력이 극대화되어 뇌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인드맵 작성 방법



○ 마인드맵 작성 실제



③ 약점을 보완하는 오답노트 정리법

세로선을 중앙에 그어 T형 노트로 만들면 오답노트로 사용하기에 좋은 형태가 된다. 수학이나 물리 문제 풀이 과정을 비교해서 정리하는 형태나 오답 내용을 평가하는 형태로 활용하기 좋다.

○ 오답노트 공간 사용법

기본 개념	개념에 관련된 그림, 도표 등
핵심 내용과 개념 원리	기본 개념에 관련된 그림, 도표 기록

단원명	문제 유형, 키워드
틀린 문제: 수기 또는 복사해서 붙이기	풀이 과정과 정답 틀린 이유

○ 오답노트 작성 방법

오답노트는 주요 개념과 기본서 내용이 충분히 숙지된 상태에서 문제집을 풀고 만드는 것이 좋다. 노트 상단에 단원명, 테마를 적고 핵심 키워드나 문제 유형을 우측 상단에 표시한다.

너무 많이 틀렸을 때에는 자주 틀리는 문제, 이해가 잘 되지 문제를 선별하여 옮겨 적어라(때로는 문제 부분만 복사해도 된다). 문제풀이와 답은 분할하여 적어야 답 부분을 가리고 다시 문제를 풀어 볼 때 편리하다. 코멘트 등에 틀린 이유를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문제를 잘못 읽었다든지 개념을 혼동했다든지, 계산 시 실수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적어 두면 스스로 주의해서 풀게 되므로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오답노트는 반드시 문제를 푼 날, 시험 본 날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좋다.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고 바로 작성하면 맞췄지만 헛갈렸던 문제나 시험에서 특히 어려웠던 문제 등이 생생히 기억나기 때문이다.

잊지 말자. 여러분이 문제집을 덮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망각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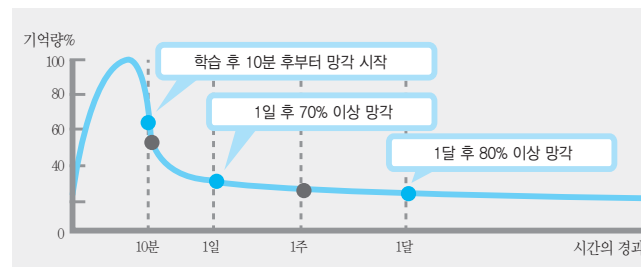
효과 만점 기본서 활용법

1 기본서가 양단 구성인 이유?

시중의 기본서를 보면 페이지의 4분의 1가량의 공간이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양쪽을 펼쳐놓고 보면 좌, 우에 각각 4~5cm 정도의 여백이 있는데 이런 구성 방식을 양단 구성이라고 한다. 이런 양단에는 보통 참조, 용어, 핵심 정리, 학습 목표 등이 정리되어 있다.

수험생들에게 이 공간을 주는 이유는 필기 공간으로 참조하고 핵심어, 부연 내용, 해당 부분에서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 등을 적게끔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서+서브노트를 한 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똑똑한 수험생이라면 이 양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 에빙하우스의 기억의 비결



▶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10분 후 복습하면 하루 동안 기억되고, 다시 하루 후 복습하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 후 복습하면 한 달 동안, 한 달 후 복습하면 6개월 이상 장기 기억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복습의 횟수를 늘릴수록 복습할 양과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조금씩 주기적(10분→하루→1주일→한 달)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2 양단 구성 활용 사례

한국사

* 경제제도 (경제)의
문단 - 경제 제도의 중요성
→ 제정 후의 경제 제도의
입장에서 큰 변화

4 부세 제도의 폐단

농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부세 제도가 잘못 운영되면서 더
가에 대해서 전세·공납·역의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 그
정수 과정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어 농민들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02 정치 구조의 변화

2013, 법원직 | 2012, 지

1 비변사의 설치

(1) 임시 기구 : 중종(1510) 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의 군무 협의 기구이다.

(2) 상설 기구화 : 명종 10년(1555)에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
설되었다.

2 비변사의 기능 강화

16세기 중엽 이후 드러난 지배 체제의 모순 등 사회 변
등의 개혁을 통해 대처하려고 노력하였다. 비변사의 기능
질서를 재정비하고자 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였다.

(1) 기능 확대 : 임진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문무 고위 관리
물론 외교·재정·사회·인사 문제 등까지 처리하는 기

(2) 구성원 : 전·현직 정승, 5조 판서(공조 제외)와 참판,
제학 등 국가의 중요 관원들로 확대되었다.

3 비변사 확대의 영향

왕권 약화 및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을 유
명무실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19세기에는
세도 정치의 중심 기구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비변사의 기능 강화는 조선의 통치
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 비변사등록 |
특한 책으로, 1617
까지의 등록이 남

4 비변사의 폐지

고종 2년 대원군에 의해 비변사의 기능이 축소(⇒ 폐지)되
의정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4

생생한 공무원 합격수기

1. 박문각 스파르타반

-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 합격하고 뒤를 돌아보니 나 혼자 합격한 것이 아니라~
- 수험은 참 괴로운 과정~ 보상과 위로가 필요

2. 박문각 기숙연계반

- 공부한 내용이 차곡차곡 쌓여서 단단해질 것을 믿으며
-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1 박문각 스파르타반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꾸준한 회독이 중요

김*영 국가직 일반행정직 9급/광주광역시 일반행정직 9급 2관왕

1 시험 지원 동기 및 수험 계획

전공이 행정학이었기 때문에 공기업과 공무원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주변 분들의 조언과 더불어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자 생각했고, 여유가 있을 때 공부를 시작해 보자 하는 생각에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 후 1년간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세울 필요 없이 학원의 커리큘럼대로 공부했습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① 국어(지방직:80점, 국가직:90점)

문법 부분은 최대한 기본서를 회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운 부분은 복습과 올패스의 반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진도에 맞는 기출이나 문제들을 풀어가며 개념을 정립하고 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독해는 아침자습마다 시간을 정해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의 긴장감을 유지하였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문제를 풀면서 여러 유형의 문제에 대비했습니다. 특히나 교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유인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② 영어(지방직:90점, 국가직:95점)

영어는 국어와 달리 기본서 회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 독해 문제집들을 사서 하루에 20문제씩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등 하루도 빠짐없이 감각을 익혔습니다(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 특히나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건 아침 하프모의고사입니다. 매일 시간을 재며 10문제씩 풀고 교수님의 해설을 듣는 과정을 통해 부족한 개념과 문제들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단어는 영어 스테디를 이용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유인물을 통해 일주일에 1-2번씩 스테디원들과 함께 시험을 보고 채점하며 단어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단어는 회독을 늘려가며 매일매일 외웠습니다.

③ 한국사(지방직:100점, 국가직:95점)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기에 한국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많았고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암기과목이다 보니 꾸준한 회독만이 답이라고 생각했고,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필기노트와 유인물 등을 이용해서 복습하고 틀린 부분의 해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진도에 맞는 문제들을 풀어가며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사료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나 시험 한두 달 전 노범석 교수님께서 세워 주신 회독 커리큘럼대로 공부하며 회독을 10회독 이상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 회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④ 행정학(지방직:90점, 국가직:95점)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필수과목에 비해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번 읽을 시간은 없었고 필기노트와 기출문제집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행정학 또한 나을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회독을 통해 선지를 꼼꼼히 읽고 나을 부분을 간추려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기출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취약 과목이라 생각했던 행정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③ 면접시험 준비 방법

지방직의 경우에는 스테디가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면접 교수님의 책을 읽고 시정, 이슈 등을 파악하며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톡방에서 정보들을 얻어가며 면접에 대비했습니다. 국가직은 면접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노량진에서 면접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했습니다. 소수인원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강의실 앞으로 나가서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뽑아주신 경험형, 상황형, 5분 발표 리스트들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스테디원들과 매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습하며 실전에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직에서 떨지 않고 면접을 볼 수 있었고 면접관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④ 슬럼프 극복 방법

휴학을 하고 노량진에서 자취생활을 하며 준비했습니다. 또한 공부 도중 투병생활을 하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두려움과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공무원이 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며 자신감을 찾으려 노력했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⑤ 가족 및 고마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많은 응원을 보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코로나로 인해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을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에 공직에서 꼭 뵈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7 스파르타를 선택한 이유

아무래도 자취생활을 하며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관리를 통해 규칙된 생활을 하며 온전히 수험생활에 집중하고 싶어 스파르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8 스파르타의 관리에 대해 평하자면?

수험생이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이 중요한 수험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쓰게 해 준다는 점에서 수험생에게는 꼭 필요한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9 스파르타의 장점

우선 수험생에게 제공해 주는 문제가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주간, 월 말 모의고사, 단어 시험들은 제가 실전 감각을 익히고 많은 문제에 접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듣는 교수님의 하프모의고사 외에도 타 교수님들의 하프모의고사도 제공해 주어서 영어 실력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험생에게 발붙이고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 나만의 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 다른 수험생들과 공부하면서 긴장을 유지하고 다른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문제집을 푸는지 같이 정보 공유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의 자습시간을 통해 저만의 순공시간 확보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강 제공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부득이하게 실강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강의 도중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스파르타에서 제공해 주는 올패스로 다시 듣고 싶은 강의나 특강을 다시 들을 수 있고, 놓친 부분 또한 보충할 수 있어서 수험 생활 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합격하고 뒤를 돌아보니

나 혼자서 합격한 것이 절대 아니라~

조*형 충남(아산) 일반행정직 9급/국가직 세무직 9급 2관왕

1 시험 지원 동기 및 수험계획(계획 수립 방법 혹은 내용)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전공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공무원은 안정적이고 학벌이나 스펙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닌 단순히 시험으로 뽑는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군대에서 공무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고 학교를 휴학하고 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실강을 듣기로 정했는데 실강도 들을 수 있고 공부하는 장소와 인강을 제공해 주는 스파르타 관리반의 시스템이 좋다고 판단하여 스파르타반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관리반에 계신 직원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강사를 선택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① 국어

문법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회독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공부하였는데 많은 작품이 실려 있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자는 수업에서 나눠줬던 10분 강의 교재로 매일 꾸준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시험 직전 동형 모의고사 수업을 들었는데 같은 문제를 다른 유형과 난도로 풀 수 있어서 제 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험 직전에 자신의 실력을 정돈할 수 있기 때문에 동형 모의고사를 수강하지 않더라도 꼭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② 영어

영어는 김세현 교수님 수업만 들었습니다. 영문법은 심화 수업을 듣게 되면 나눠 주시는 문법 프린트물이 있는데 그것을 꾸준히 회독하였으며 하프모의고사를 풀면서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저는 어플을 통해서 외웠습니다. 문법은 기본적으로 회독을 열심히 해서 이론은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실전에서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프 모의고사를 꼭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동형 모의고사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수강하는 강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 더 나아가서 다른 학원 강사들의 문제도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동형 모의고사 시즌 때 박문각에 계신 세 분의 영어 교수님들과 타 학원의 강사분들 문제까지 해서 총 다섯 분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③ 한국사

한국사는 특별히 한 것 없이 노범석 교수님의 수업만 잘 들었습니다. 노범석 교수님이 주신 자료로 회독을 하고, 기본서와 기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나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기본서에서 회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사 특강을 많이 듣지 않았고 회독과 문제풀이를 반복하여 이번 지방직에서는 100점을 맞고 국가직에서는 90점을 맞았습니다.

③ 면접시험 준비 방법

저는 면접 강사의 강의를 신청하고 강의를 듣지 않고 그 강의를 샀을 때 제공되는 자료를 토대로 혼자 준비하였습니다. 면접 스터디 역시 따로 하지 않았고 혼자서 말을 하는 연습만 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자료들은 대부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았고 공직관은 면접 강의에서 제공되는 기출 자료를 보고 준비하였습니다. 면접 스터디는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스터디들이 그렇겠지만 플러스가 되는 스터디가 있는 반면에 마이너스가 되는 스터디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고 싶으시다면 구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④ 슬럼프 극복 방법

저는 초사에서 떨어지고 재시를 볼 때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기본서를 회독하기가 싫어졌는데 기본서를 읽어도 지루함만 느껴졌습니다. 또한 평소에 암기를 할 때 쓰면서 암기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펜을 들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서 회독하는 방법을 평소와는 다르게 하였습니다. 원래 선사시대부터 봤다면 저는 조선 시대부터 회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흥미가 솟지는 않아도 이전보다는 조금은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⑤ 가족 및 고마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선 가족들에게 항상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공부하다가 뒤통가 없다고 느낄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시험을 보는 외로운 시험이라고 생각했었지만, 합격하고 뒤를 돌아보니 나 혼자서 합격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파르타 반에 직원분들 역시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책부터해서 자료들 그밖에 학원을 다니면서 받은 모든 편의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6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많은 수험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느낌이 들겠지만 저는 성적은 꾸준히 하기만 하면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한 문제에 5점인 객관식입니다. 4개의 선지 중 2개의 선지를 알고 틀리는 사람과 모든 선지를 모르고 틀리는 사람은 똑같이 -5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전에는 1개의 선지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부를 하여 2개의 선지를 아는 수준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점이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여서 3개의 선지를 알게 되는 순간 -5점은 +5점으로 바뀌면서 성적은 눈에 띄게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공부를 하신다면 반드시 성적은 오른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7 스파르타를 선택한 이유

제가 스파르타를 선택한 이유는 강의 선택에 자유롭고 또한 출결 관리 및 공부하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독서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독서실 같은 경우 좌석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하지만 스파르타 자습실은 교실형 독서실로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본인에게 공부 자극을 주고 경쟁자들이 눈앞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경각심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파르타를 선택하였습니다.

8 스파르타 관리에 대해 평하자면?

스파르타의 출결 관리 시스템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를 다니면서 결석을 한 적은 없지만 몇 번 지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자를 하고 문자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바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출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러한 문자를 받을 때마다 좀 짜증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러한 관리 때문에 단 한 번의 결석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자습 시간 동안 자습실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다른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에서 흔히 느끼는 왔다갔다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서 좋았습니다.

9 스파르타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스파르타의 가장 큰 장점은 오로지 공부에만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항상 배치되어 있고 독서실 혹은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할 때 느끼는 사소한 문제들을 느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스파르타를 다니지 않는 수험생들과의 차이를 만들어 주고, 그러한 차이들이 성적에서 차이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합격 불합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은 참 괴로운 과정~ 보상과 위로가 필요,
 캄캄한 터널 속에 있어도 이 끝에 출구가 있다고 믿어야~

홍*기 광주광역시 일반행정직 9급/국가직 교정직 9급 2관왕

박문각 스파르타에 다니면서 수험 생활을 했던 1년 동안의 기간을 복
 기해 보겠습니다.

1 시험 지원 동기 및 수험 계획

대학교 1학년을 다니면서 진로를 결정하다가 공무원이 현실적인 직업
 으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공무원 9급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
 니다. 친형과 함께 박문각 스파르타 1년권을 끊었고, 1년 안에 합격해
 서 나가자는 생각으로 한달 한달 마음 상태나 공부 계획 등을 점검했
 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박문각 스파르타를 선택하게
 되었고, 저는 이 선택이 저를 합격하게 만들어 준 최고의 선택이었다
 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박문각 스파르타는 출결 체크부터 면학
 분위기를 잘 조성해 줘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① 국어

저는 전선헤쌤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재밌으시고 너무 좋아서 7~8
 월 기본개념 강의 때는 실강을 봤었습니다. 국어는 잘 못하는 과목 중
 하나였는데 제가 문법이라는 공시의 길에서 헤매지 않게 기틀을 잡아
 주셨고, 인강 듣는 내내 지루하지 않아서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문법 포인트 잡기 그리고 교재가 좋아서 정리하기에 좋았고 강의도 다
 양해서 필요한 부분을 쏙쏙 들을 수 있었습니다.

② 영어

영어는 따로 강의를 듣거나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어서 나
 에게 공부하기 좋은 책들을 자주 보러 서점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
 다. 영어는 가까운 수능 세대라 아직 몸에 영어 DNA가 남아 있어서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주관적으로 공무원 영어는 문법
 과 단어만 수능보다 지엽적이고, 독해 문제들은 고2 학력평가 수준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 실력을 다지고 단어와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고득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③ 한국사

한국사는 노범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의 강의도
 들어봤지만 사실 범석쌤만 한 분이 없습니다. 배속을 해도 깔끔하게
 잘 들리고, 그 많은 양의 한국사를 나중에 필기노트 하나로만 해결해
 도 돼서 좋았어요.

스토리텔링과 주변 결가지치기는 개념들도 잘 잡아주셔서 기출에서
 파생되는 내용들을 잘 캐치할 수 있었고 시험장에서도 100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④ 행정학

행정학 시험과목 특성상 기본서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숙지하기에는
 무리가 큼니다. 하지만 다행이게도 나왔던 출제포인트에서 반복되고
 기출문제 재탕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과목이 행정학입니다.

3 면접시험 준비 방법

면접시험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실강은 듣지 못하고 인강으로 대체하고, 스티마 선생님 책 하나 사서 면접 스터디원을 꾸려 같이 준비했습니다.

지방직 필기 합격하신 분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시청이나 교육청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면접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책을 토대로 준비하시면 무리 없이 잘 패스하실 수 있습니다.

4 슬럼프 극복 방법

① 긍정적인 생각하기

수험은 참 괴로운 과정입니다.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걸어가는 느낌일까요? 하지만 똑같이 캄캄한 터널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끝에는 출구가 있다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는 정반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피폐하고 괴롭다고 느껴질 때 공부는 혼자 하지만 마음속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② 보상 심리 이용하기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가령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고장이 나는데 사람이라면 몸이나 마음이 고장이 안 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상 받고 위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의 7일 중 6일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면 하루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휴식시간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사고 싶은 것 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수험에 방해되는 중독성 있는 것은 하면 안 되겠죠?

5 가족 및 고마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선 7급 준비하는 형에게도 수험 메이트가 되어 주어서 너무 고맙고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형도 이번에 국가직 7급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좋은 점수로 합격권에 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6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수험 말고는 아무 생각을 안 할 정도ですよ.

공무원 시험은 수능과 다르게 붙으면 직업을 주는 시험이라 우린 시험에 붙으면 다시는 책을 안 펴도 됩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자기에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수험 생활을 즐겨 보세요. 물론 즐기기는 힘들겠지만 지나가면 모든 것이 미화되고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 수능 때처럼요.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만 않고 끝까지 시험장까지 끌고 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기회가 있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겠죠. 이 글을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박문각 스파르타에 다니시는 분들 모두 건투를 빕니다.

2 박문각 기숙연계반

공부한 내용이 차곡차곡 쌓여서 단단해질 것을 믿으며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

최*진 경기(남양주) 일반행정직 9급

1 왜 박문각 기숙반이었나?

휴학을 하고 일 년을 본가에서 지내면서 혼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박문각 프리패스를 끊어서 인강으로 공부를 했는데 혼자 하다 보니 점점 게을러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생활엔 공부에 방해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다간 절대 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기숙반이었습니다. 기숙 시스템이라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숙반이다 보니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일 수 있으나 시험까지 막판 스퍼트를 올릴 수 있다면 해볼 만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듣던 인강이 박문각이어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이어서 듣는 것이 제 공부 흐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기숙반 생활은?

초반에는 여섯 시에 기상하여 준비하고 여섯 시 반이면 집을 나와 연계된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숙반에 머무는 동안 오전 하프 영어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영어 하프 수업을 들은 후 자습실로 가서 자습을 하고, 점심을 먹고, 자습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자습을 하고 열시 반이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에는 씻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열두시 반이면 보통 잤던 것 같습니다. 최소 5시간은 자려고 하였습니다. 하프 수업이 없던 날도 똑같이 자습실로 가서 하프 문제 풀듯이 영어 문제를 풀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일요일은 자습실 열고 닫는 시간에 맞춰 아홉 시쯤 나갔고 아홉 시에 집에 돌아와서 조금 더 쉬고 다음 주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수면 패턴이나 공부 패턴을 시험 날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같은 생활이었지만 딱히 질린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생활했던 언니들이 잘 챙겨 주었는데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주말에 가끔 맛있는 것을 먹는다면,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음료를 사온다면, 사육신 공원에서 같이 산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기숙사 시설도 딱히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넓은 방이 아니지만 어차피 하루 대부분은 자습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 잘 나오고, 잘 내려가고, 침대 멀쩡하고 공용 세탁기도 사는 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별 탈 없이 지냈습니다.

3 기숙반 수업은?

오전에는 실강을 들을 수 있었고 기숙반을 위해 오후에나 저녁에 한 두 시간씩 보충 수업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교수님들 모두 열심히 해주셨고 실강을 들으니 수업 전 테스트에도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오전 강의를 실강보다는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사람 스타일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인강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어서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져 문제풀이 실강을 할 때는 꼭 실강에 참여하여 시험을 보았고 제 실력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본강은 인강을 애용하였으나 기숙반을 위한 보충수업은 참여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숙반만 참여하기 때문에 교수님께 질문도 편하게 많이 할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들도 바쁘실 텐데 추가 수업 자료도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제공해 주시고 상담도 해주시는 등 도움을 더 주시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4 기숙반 관리는?

우선 기숙반 관리 중 제가 가장 덕을 많이 보았던 것은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자습실에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제출하고 밤에 집에 가는 길에 휴대폰을 찾아갔는데 하루 종일 휴대폰이 없다 보니 공부에 집중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반 학생들은 매주 주간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주간 모의고사를 통해 제가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과목이 아니더라도 국어, 영어, 한국사를 매주 큰 부담 없이 볼 수 있다는 것도 주간 모의고사의 장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간 모의고사도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숙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강생들도 함께 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내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 향상하고 있는지를 혼자서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다섯 과목을 보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틀린 부분을 확인하고 기본서를 다시 보면서 채워나가며 공부하였습니다.

5 기타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말?

학원 다니면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줄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사람을 사귀는 것은 수험생활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같이 공부하게 되니 아침에 늦지 않게 나가게 되고, 혼자 집에 가고 싶다가도 일단 끝까지 함께 자습실에 앉아 있게 되고, 같이 시험 정보도 공유하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험기간 동안 제 자신으로부터는 별 생각 없이 사는 성격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숙반 생활을 하게 되면 평소 생활과 많이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공부하는 동안 불안한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 할 일을 꾸준히 하고,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머리를 굴려주고, 틀리면 다시 기본서 확인하며 보완하면 차곡차곡 쌓여서 단단해질 것이라 믿으며 불안해하지 않고,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넘기며 하루하루를 반복하였습니다. 일단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 그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대로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이니까요~

항*선 인천광역시 일반행정직 9급

1 박문각 기숙반을 선택한 이유는?

하루에 기본 10시간씩은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 스스로 저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깨닫고 저의 생활 전체가 통제가 가능한 기숙반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따로 숙소나 강의를 알아볼 필요 없이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르면 된다는 점이 특히 초시생인 저에게는 장점이었습니다.

2 기숙반 생활은?

엄격한 통제 아래에서 개인의 능률적인 학습 또한 포용을 해주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 관리나 휴대폰 관리는 철저하게 하면서 통제하는 공부 시간 동안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공부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매주 그리고 매달 이루어졌던 모의고사 역시 틈틈이 저의 자극제가 되어 좋았습니다.

3 기숙반 강의는?

기본에 충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잘 따라오기만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인 이유 역시 교수님들의 강의가 다 기본에 충실하여 과정대로 거친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선우빈 선생님의 한국사 수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테마별로 암기하도록 해주신 덕에 근현대사와 현대사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맞힐 수 있었습니다.

4 기숙반 관리는?

핸드폰을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통제하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솔직히 공부하면서 몇 번이고 그만하고 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그때 제 옆에 휴대폰이 있었다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합격 수기를 쓰고 있는 일도 없었겠죠?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 일일 모의고사 시스템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로 영어 과목이었는데, 매일 영어 단어와 문법에 대한 감을 조금씩 기를 수 있었습니다.

5 과목별 공부 방법은?

① 국어

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잡았다 싶으면 문제풀이를 엄청 했던 것 같습니다. 문법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나오니까 개념 확인차 풀고, 로마자나 표기의 예외 등 단순 암기인 내용들은 개념서만 보며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 위주로 확인하며 그때 잠깐잠깐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② 영어

영어는 단어 70에 문법 30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모르는 단어를 보고 멘붕이 와서 뒤에 문법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거꾸로, 독해, 문법, 단어 식으로 풀고는 했습니다. 가장 성적 올리기 어려운 과목이니만큼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또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단어가 많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기본에 충실하자는 마인드로 기본 단어들부터 외워 나갔더니 올해 지방직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③ 한국사

한국사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테마별로 암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특히 문화사에 많이 약했는데, 테마별로 암기하니 좀 더 수월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근대사와 현대사의 경우 머릿속에서 비슷한 개념들끼리 묶어서 외우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연도와 인물들을 외우기가 쉬웠거든요!

6 기숙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힘들고 외로우실 겁니다. 6시 전에 눈뜨고 12시 전에 잠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하시면 가능하실 겁니다. 저 역시 고작 1년 준비한 초시생이었고, 무려 시험 보기 두달 전까지 저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두달 전이라는 시점이 돼서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학원의 지도와 교수님들의 수업을 따라가 보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대로 얹어져 있지 않는 것이니까요.



D-1 시험 전일 막판 정리법!

① 시험 전날에는 5과목(9급 수험생 기준)을 빠르게 통독해야 한다

시험 전날에는 아침 공부, 오후 공부, 저녁 공부 시간을 3타임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시험 전날 5과목을 전부 통독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서나 자기만의 서브노트, 오답노트 등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사항,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본인이 암기가 부족한 사항을 빠르게 훑어 나가면서 통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는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지 말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 단원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넘어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② 시험 전일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시험 전날에는 긴장감, 압박감, 부담감으로 쉽사리 잠자리에 들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시험 전일은 되도록 일찍 일어나서 오전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평소 낮잠을 자던 수험생이라도 시험 전일은 되도록 숙면을 위해 낮잠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평소보다 약 1시간 정도 이른 시간에 취침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수면제 등을 복용하지 말고 따뜻한 우유, 대추차, 허브티 등을 먹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시험장에 들고 갈 자료, 필기구, 수험표, 신분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라

시험 당일에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긴장되고 정신이 없어서 꼭 챙겨야 할 자료와 신분증 등을 빠뜨리기 일쑤다. 그러므로 시험장에서 꼭 봐야 할 자료(너무 두꺼운 것은 삼가자), 필기구와 수험표, 신분증, 스톱워치 등을 미리 가방에 잘 넣어 두는 것이 좋다.

④ 시험장까지 가는 방법(대중교통편)을 잘 확인해서 메모해 두자

자신이 배정받은 시험장까지 가는 길, 교통편은 미리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시험 당일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되도록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고 몇 번 출구로 나가서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드디어 D-Day, 시험장에서 해야 할 일

① 시험장에는 여유 있게 도착하자

시험장에는 되도록 여유 있게 입실하는 것이 좋다.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9시 20분까지 입실해야 하는데 적어도 8시 30분 정도까지 입실한 후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여 본인이 가져온 자료를 보는 것이 좋다.

② 긍정적인 마인드로 합격하는 상상을 하자

시험 당일에는 불안감, 긴장감으로 심하게 떨릴 수 있다. 이때에는 가급적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나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내가 모르는 문제는 남들도 틀리는 문제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③ 개인적인 용무는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완료하자

화장실 등 개인적인 용무는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9급 공무원 시험은 100분의 시험시간 동안 화장실 출입을 할 수 없다.

④ 답안지를 받으면 기본 사항(수험번호, 성명, 직렬 등)을 꼭 표기하자

답안지를 받으면 감독관의 설명이나 지시에 따라 기본 사항을 꼭 표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수험번호, 직렬, 성명은 표기 후 한번 더 확인해 보자.

⑤ 문제지를 받고 나서는 시간 안배에 힘쓰면서 문제를 해결하자

시험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1년 공부가 무너지게 된다. 문제지를 받고 나서는 시간 안배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먼저 풀고 모르겠는 문제는 별표나 세모 등 자신만의 표시를 해 두고 넘어간다.

⑥ 시험 종료 10분 전에는 마킹을 해야 한다

시험 종료 10분 전에는 반드시 답안을 답안지에 차례대로 옮겨 적기 시작해야 한다. 시험 당일은 긴장감 때문에 평소 마킹을 빨리 실수 없이 하던 수험생도 실수하거나 틀려서 답안지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침착한 마음으로 밀려 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답안지에 마킹을 해야 한다.

전 과목 무제한 수강 박문각 관리형 올패스

언택트 시대! 맞춤형 합격 관리! 업계 최초!
학원이 직접 관리하는 캠퍼스 X 무제한 수강 올패스



캠관리형 올패스 전용 프리미엄 서비스



박문각 월간
합격예측 모의고사
매월 자동 배송



반복학습의 힘!
국어, 영어, 한국사
매일/매주
온라인 모의고사



업계 최초!
밀착관리 프로그램
ON 캠퍼스 X



매일 10문제씩
노량진 현장 참여 가능한
하프 모의고사 무료

박문각 올패스 하나면 공무원 합격 OK!
박문각은 합격만을 생각합니다.

합격생 3명 중 2명은 1년 내 합격! 스파르타 실강반

혼자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만, 빠른 합격은 쉽지 않습니다.
체계적이고 뱁센 관리로 1년 내 합격을 목표로 하는 반입니다.

체계적이고 뱁센 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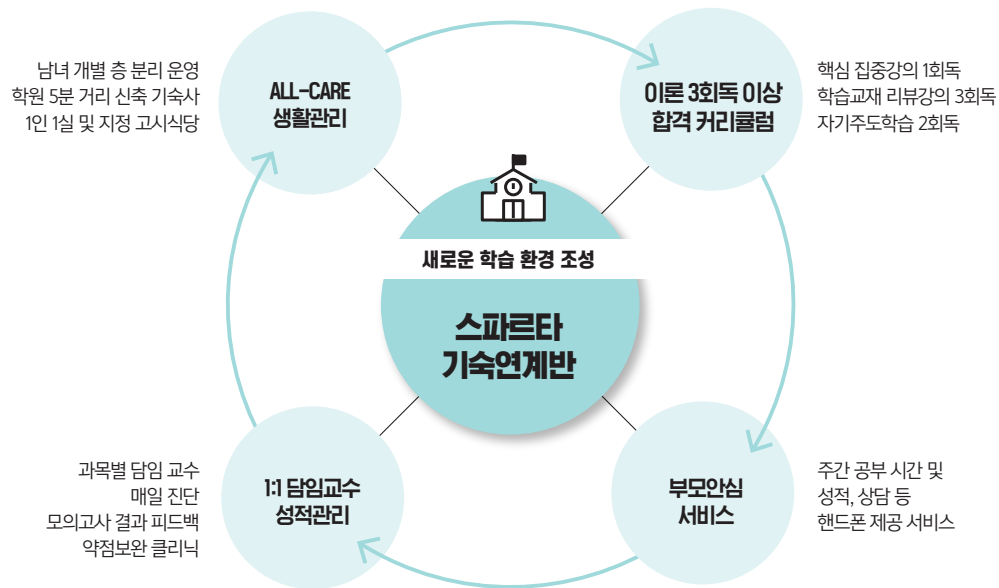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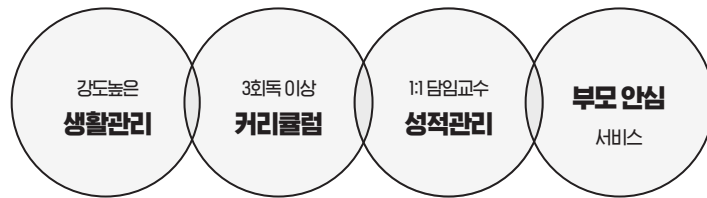
철저한 등원 관리	매시간 자습 관리	공부 방해요소 차단	성적 관리
부모님도 확인할 수 있는 자녀분의 등원 관련 문자 발송	집중력 강화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	휴대폰 수거를 통한 학습 집중도 향상	모의고사를 통한 개인별 맞춤 성적관리

등록 기간 수험생에게 필요한 모든 혜택 제공



합격생 3명 중 2명은 1년 내 합격! 스파르타 기숙연계반

전담 매니저의 24시간 학습 및 생활 밀착케어를 통해 공부습관을 바꾸고
담당교수의 성적 피드백으로 약점을 체크/보완해 전원 합격을 목표로 하는 반입니다.



공무원수험의 메카 노량진에서 50명만을 위해 준비한
박문각 스파르타 기숙연계반으로 확실한 합격을 준비하세요!

각 직렬별 모든 과목 수강 박문각 직렬별 올패스

나의 진로가 명확하다면, 직렬별 올패스가 제격!
저렴한 수강료, 빠짐없는 커리큘럼



검증된 박문각 직렬별 올패스

교육행정직 올패스	교정직 올패스
군무원 올패스	소방직 올패스
사회복지직 올패스	세무직 올패스
보호직 올패스	검찰직 올패스

박문각은 여러분의 빠른 합격만을 생각합니다.

합격률 95%의 신화! 절대적인 명품강의

이준현 채움팀 법원검찰

지난 26년간 최고의 적중률과 합격률을 기록한
수 많은 선배들이 추천하는 바로 그 강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품관리 채움 관리반 프로그램

① 상담 관리

- 2주 1회 필수 상담
- 그룹상담
- 3~4명씩 소그룹 방식의 단체상담

② 학습상황 및 생활태도 점검

- 스케줄러상의 학습계획에 맞는 공부상황과 생활태도 등 점검

③ 성적 관리

- 실제 시험 성적
- 모의고사 성적
- 과목별 성적에 대한 상담 진행

④ 슬럼프 관리

- 답임제도를 통한 수강생 출결 기록
- 지각 야간! 자습 무단 결석 시 상담 관리로 슬럼프 사전 차단

⑤ 야간 강제 자습

- 출석 체크
- 수시 순찰
- 자습시간 내 이동 불가

⑥ 국어&영어 특별 관리

- 영어 : 개인별 맞춤형교재 선정 및 숙제 검사 (2주 1회 정기 진행)
- 국어 : 시험 시기 및 성적에 따라 공부 방향 제시

· 관리반 별도 등록 수강생에 한함